

| 14일 Market Index | | | |
|------------------|----------|-------------|----------|
| ↑ 코스피 | 2572.89 | ↑ 코스닥 | 899.47 |
| | (+38.19) | | (+16.75) |
| ↓ 금리 (연이자율) | 3.836 | ↓ 환율 (원/달러) | 1325.70 |
| | (-0.017) | | (-4.30) |



기회발전·교육자유·융합·문화 지방분권 위한 '4대 특구' 추진

尹 정부 '지방시대 선포'

과격 세제혜택으로 기업투자 확대 특구지정으로 지방권한 대폭 강화

지방 육성 인재, 지역 내 정착으로 지역성장 선순환 생태계 구축 목표



지방시대 선포식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이 4대 특구 신설과 함께 본격 시작된다. 과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공공교육 혁신, 지방 도심특구 조성, 로컬 문화 콘텐츠 육성 등이 골자다. 특히 지방에 대폭 권한을 주고 기업과 협의를 통해 특구를 지정하는 등 그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기업인, 청년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위원회는 이번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제시했다. 지방의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일자리 확대, 지역주도 특화발전, 맞춤형 생활 복지, 교육개혁을 추진토록 한다는 방

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개 특구를 신설해 추진한다.

우선,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지방정부가 여의도 면적만한 공간을 선정해 산업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 지정되면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된 10종 이상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교육자유 특구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추진된

다.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 규제 해소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공공교육을 강화하고 지방대를 지역 명문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판판교테크노밸리사업인도심 융합특구 조성도 시작된다. 도심융합 특구는 쇠퇴해가는 지방 대도시 도심 지역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주거, 상업·문화·여가가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이 이뤄진다.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우는 문화특구 지정도 본격 추진된다. 올해 12월 7개 권역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문화공간 조성 과 지역별 문화콘텐츠 생산 등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씩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무엇보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철도노조 총파업 돌입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14일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선로에 화물열차가 멈춰서 있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뉴시스

현대차 '아이오닉 5N 테크 데이'

정의선이 공들인 고성능 전기차 650마력 제로백 3.4초 국내유일

온몸 설레게 하는 배기음 주행성능·내구성 동시 충족

"아이오닉 5N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용기, 끊임없는 도전으로 한계를 극복했으며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박준우 현대자동차 N 브랜드 매니저먼트실장(상무)은 14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레이아웃 11에서 열린 '아이오닉 5N 테크 데이'에서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N에 적용된 전동화 기술을 이같이 말했다. 실제 이날 행사장에 들어서자 아이오닉 5N의 배기음은 온몸을 설레게 했다. 배기음이 없는 전기차 특성상 조용한 분위기로 행사장을 꾸미는 경쟁 브랜드와 사뭇 다른 느낌을 줬다. 아이오닉 5N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오랜기간 공을 들여온 모터스포츠의 경쟁력과 첨단 기술이 더해져 완퍼카와 경쟁에도 밀리지 않는 성능과 다양한 기술을 갖추고 있다. 특히 현대차의 55개가 넘는 팀이 협력을 통해 내놓은 결과물이다.

박준우 현대차 N 브랜드 매니저먼트실장(상무)은 "아이오닉 5N은 고성능 전기차의 새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이라며 "지금까지 출시된 전기차로는 힘들었던 주행 성능과 내구성 등을 동시에 충족시킨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650마력, 제로백 3.4초를 내는 전기차는 국내 유일하다"고 자신했다.

현대차는 이날 행사에서 N 브랜드가 추구하는 3대 핵심 요소인 ▲레이스트

랙 주행능력 ▲곡선로 주행능력 ▲일상의 스포츠카를 바탕으로 아이오닉 5N에 탑재된 핵심 기술과 작동 방식을 소개했다. 발표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고성능 차량 개발 담당 연구원들이 직접 참여했다.

현대차가 개발한 아이오닉 5N은 고성능 사륜구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최고 출력 650마력, 최대토크 770Nm 성능을 발휘한다. 또 날카로운 코너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N 특화 차체 사시와 N 페달을 적용했다. N의 중량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차체와 사시를 효율적으로 보강해 더욱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주행성능을 확보했다.

특히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 개발된 4세대 고전압 배터리셀과 고성능 열관리 제어시스템 등을 적용했다. 박상진 현대차 배터리셀 설계팀 파트장은 "현대차 아이오닉 5N은 SK온과 협력해 개발한 배터리가 탑재됐다"며 "기존 전기차 대비 강화된 4세대 배터리(670KW)를 처음으로 탑재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 아이오닉 5N 테크 데이 행사장 내부 모습. /양성운 기자

또 통화 가치 약세... 외풍에 흔들리는 원화

위안화 가치 -2.7%, 엔화 -3.7% 원화 -4.4%로 리스크 가장 취약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 한국 원화가 모두 약세를 이어감에 따라 아시아 외환시장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위안화와 엔화의 약세가 '역대급'이라지만 지난달 달러 대비 평가절하된 폭으로 보면 원화의 약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역대 최대로 벌어진 한미 금리차에 외국인 자금은 이미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중국발 경기둔화와 부진한 수출까지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부터 이달 8일까지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4.4%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7월 중순만 해도 1260원대로 안정을 찾았지만 지난달에는 134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달러 강세가 재연됐지만 엔화(-3.7%)와 위안화(-2.7%)보다도 하락폭이 컸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위안화 약세는 중국은 물론 한국 등 아시아 경제를 코너로 몰 수 있는 리스크로 부각됐다.

중국 역외 위안화 환율은 지난 8일 달러당 7.3647위안으로 2010년 8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위안화 가치 하락)했고, 역내 환율도 7.3439 위안으로 지난 2007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환율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이 변동환율제로 바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동반 약화되는 쌍절벽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수출입은 작년 10월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부양조치에도 내수 경기의 회복세를 찾아보기 힘들다.

신술위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중국의 경제부진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을 상회할 경우 여타아시아 국가들은 실물경제 위축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최근 중국의 금융시장 영향력을 감안하면 중국발 불안이 금융시장을 통해 글로벌 금융·경제에 파급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한다면 파장은 더 클 수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위안화 약세를 통한 수출 경기 회복에 총력을 쏟을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되고 있다"며 "실제 위안화 약세를 선택한다면 중국 내 디플레이션 리스크의 수출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와 외환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새만금 예산 삭감에 지역 정치인 반발 이어가... 릴레이 단식도 /사진 뉴시스
▲ 민주당 의원 55명,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 강조

▲ 국민의힘, 민주당에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촉구
▲ 경실련, 입법실적 분석 결과 발표... 최하위에 국힘 김웅 의원



▲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발언 논란 해명 약속 /사진 뉴시스
▲ 일본, 북러 정상회담에 우려 표명... 안보리 위반 가능성도 제기

“사교육·건설·통신 등 민생분야에 법집행·정책역량 집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1주년 간담회

철근누락 아파트 13개 등 LH 발주 입찰담합 연내 조사완료·심의절차 학원 거짓·과장광고 이달 조사완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사교육과 건설, 통신, 은행 등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에 역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카르텔 관련 사교육업계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는 이달 중 마무리하고, 철근 누락 아파트 감리 입찰 담합 조사도 속도를 내어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정당한 제 몫을 보장해주는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단단한 밑받침이 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민생 분야에서의 법집행과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코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쟁원리를 부정하고 기존 사업자들의 이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한다. 건설 분야와 사교육, 통신·금융 분야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에서 입찰담합이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 중으로, 연내 조사를 완료하고 그에 따른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

학원과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출제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담

처리 TF를 구성해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부당광고 등의 사안을 집중 조사하고 있고, 이달내 조사를 마무리한다.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은행들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및 은행과 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 등과 관련한 담합 혐의도 면밀히 살피고 있다. 통신 3사, 은행 건에 대해서는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국고채 입찰 관련 건도 순차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은행 및

저축은행 불공정약관 시정요청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사·금융투자업자 약관도 점검해 연내 시정요청기로 했다.

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시책도 마련한다. 한 위원장은 “현재 대부분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필수품목 거래관행”이라며 “기존에 발표한 가이드라인 형식이 아니라 강제성 있는 법령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맹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기로 하고 조만간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4일 본격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조기 정착하도록, 연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연동지원본부도 신속 지정해 기업들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탈취 적발과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현 3배)를 상향하고, 손해액 산정·추정기준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노력한다.

전자상거래와 모빌리티, 숙박 등 핵심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독과점 플

랫폼 등의 반칙행위에 대한 조사도 연내 마무리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갑을분야(플랫폼-입점업체), 독과점 분야(블랫폼 간 경쟁) 구분해 정책을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갑을 관계에서의 거래관행 개선은 자율규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상반기 마련된 배달앱·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은 현재 순조롭게 이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집단은 물론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도 법을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중견집단 내 내부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반 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근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만큼 지주회사 CVC를 통한 투자 활성화 위해 CVC의 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현재 20%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1면 ‘표 통화가치 약세’서 계속

0~14세 인구비중 11.5%… 日에 뒤져 ‘OECD 최하위’

日, 2021년 11.8%→작년 11.6%로 OECD평균은 17.3% 6명 당 1명 꼴

우리나라의 유소년인구 비중이 가장 작은 국가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비교한 52개국(회원·비회원) 중 한국보다 비중이 낮은 곳은 없었다. 일본은 역대 처음으로 한국보다 유소년 비중을 앞질렀다.

14일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0~14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5%로 나타났다. 2021년(11.9%)보다 0.4%포인트(p) 줄었다.

일본도 같은 기간 11.8%에서 11.6%로 내려갔지만 감소 폭은 한국이 더 컸다. 이로써 한국은 38개 회원국 중 그간 ‘만년 최하위’ 일본 자리를 이어받았다.

지난해 OECD평균은 17.3%였다. 회원국은 인구 6명당 1명 이상이 유소년인데 반해 한국은 10명에 1명꼴인 것이다.

2000년대 초반 해도 우리나라의 15



지난 1984년 국내 한 초등학교(국민)학교 교실. /국가기록원

세 미만 비율은 20%(2002년 기준 20.4%) 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본은 당시 14.2%였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2년 우리나라(15.1%)와 일본(13.0%)의 격차는 좁혀졌고 2017년에는 각각 13.1%, 12.3%로 1%p 이내로 근접했다. 그리고 작년에 위치가 뒤바뀌었다.

OECD는 유소년인구 비교에서 전

세계 평균치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25.3%로, 지구촌 인구 4명 가운데 1명은 15세 미만의 영·유아·어린이라는 통계다.

또 52개국을 비교했다. 남아공이 28.1%로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이스라엘(27.8%), 인도(25.3%), 멕시코(25.1%), 사우디아라비아(24.5%), 아르헨티나(24.0%), 브라질(20.5%) 순

이었다. 15%를 넘는 국가는 미국(17.8%)을 비롯해 러시아(17.7%), 프랑스(17.4%), 중국(17.2%), 영국(17.1%), 노르웨이(16.8%), 캐나다(15.6%), 네덜란드(15.4%) 등이다. 주요 20개국(G20) 평균이 20.3%, 유럽연합(EU)이 15.0%로 집계됐다.

한국과 일본에 이어 이탈리아(12.6%)가 비중이 낮았다. 포르투갈(13.0%) 그리스(13.4%), 독일(14.0%), 크로아티아·싱가포르·불가리아(14.3%)도 상대적으로 유소년인구가 적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우리나라의 0~14세 인구는 57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2%에 불과했다. 이는 OECD의 공식집계(11.5%)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향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점쳐진다. 올해 1월(11.4%)과 비교해 비율이 불과 7개월 만에 0.2%p 내려앉았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18.1%에서 18.6%로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달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30.0원)보다 4.3원 내린 1325.7원에 마감했다. /뉴스시스

“최근 엔화약세 현상 일본 경기엔 긍정적”

엔화 약세는 한국 경제 대비 일본 경제의 상대적 호조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했다. 실제 한국 증시가 조정되어 가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 증시는 상승세가 이어졌다.

엔달러 환율은 초완화적 통화정책에 달러당 147.81까지 상승(엔화 가치 하락)해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의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구두개입에 나섰지만 엔화 약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연구원은 “작년에 엔화 초약세 현상을 일본 경제의 위기로 바라본 시각이 있었던 반면에 최근 엔화 약세 현상에 대해서는 일본 경기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일본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 경제는 상저하고 기대감마저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서베이 기준으로 일본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가 1.9%로 한국 1.2%를 웃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안상미 기자 smahn1@

고물가·고금리 지속… 韓경제 성장세 회복 더더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물가 3.4%↑… 4분기 3%대 예상 中 경기회복 지연에 韓 수출 부진

한국경제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금리가 지속되며 가계의 구매력은 약화되고, 민간의 투자여력도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수출이 부진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며 가계의 소비가 주춤하고 있다.

◆ 고물가 고금리… 소비여력 낮춰 소비자물가는 8월에 전년 동기 대비 3.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1월 5.2%에서 3월 4.2%, 6월 2.7%까지 떨어지다 다시 올랐다.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영향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향후 물가흐름

은 국제원자재가격과 기상여건, 국내외 경기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4분기에는 물가상승률이 3% 안팎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금리 수준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해 0.5%에서 3.5%까지 끌어올렸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5개월만에 25조원 증가했다.

◆ 중국 경기 부진… 韓 수출 영향

수출은 점진적인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이 부진해 개선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국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도 악화하고 있다”며 “민간소비의 회복이 더디고, 수출부진도 지속돼 경기 하방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지역기업 5년간 소득·법인세 100% 감면 등 특구 실효성 ↑

지방정부 특구지정 권한 확대
주택 특별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
지방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정부가 14일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등 4개 특구 신설이 핵심이다. 특히, 특구 지정에 대한 지방정부 권한을 대폭 확대해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방 역세권 요지에 지방관 '판교테크노밸리'도 조성한다.

◆ 기존 특구 한계 극복... 세제감면·규제특례 부여

지방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좋은 일자리가 필수다.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의 지방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선 기업이 함께 해야 한다.

그간 다양한 경제특구가 지방에서 운영돼 왔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 주도 특구 설계와 지정으로 지방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특구를 만들어 놓아도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거나, 특구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수준 또한 기대보다 낮아져서다. 또 인센티브가 초기 투자 지원에 한정돼 기업의 중장

기 성장을 이끌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기회발전특구는 이런 점에서 기존 특구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상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 깎아준다.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후 5년간 50% 감면을 적용한다.

또 기업의 지방투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긴다. 이와 함께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을 마련한다.

◆ 지역 맞춤형 공교육 혁신, 상향식 정책 가능케

특히 지방에 거주해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지역인재가 공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공교육 내실화를 골자로 한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등을 종합 지원하는 체제 도입이 목표다.

지역 공교육 혁신·인재양성 지원
문화특구 도시별 최대 200억 투입
연내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이와 같은 지역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이달 중 정부 시안을 발표하고 11월 공청회 개최 등을 거친 후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올해 12월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되고 2024년부터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

시대 대표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와 삶, 여가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됐던 지역 개발과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 도심융합특구는 도시·건축 파격적 혜택

도심융합특구에서는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토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또 입주기업의 창업지원과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부처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기업 지원에 나선다. 올 하반기 '도

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된다.

아울러 '로컬리즘(지방다움)'을 콘텐츠·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 관광 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역 문화·콘텐츠진흥사업인 문화특구 지정도 본격화된다. 올해 12월 7개 권역별 13개 문화특구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씩 지원하고, 내년에는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원을 투입한다. 로컬 여행 콘텐츠를 활용한 위케이션 프로그램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체류형 여행 모델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주요 내용

비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목표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 | | | | | |
|-------|-----------------|------------------|------------------|------------------|-------------------|
| 5대 전략 | 자율성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
|-------|-----------------|------------------|------------------|------------------|-------------------|

| | | | | |
|-------|----|----|----|----|
| 4대 가치 | 자율 | 공정 | 연대 | 희망 |
|-------|----|----|----|----|

자료/지방시대위원회

尹 대통령 “15개 국가 첨단산단 조성... 5개 이상 디지털혁신지구 만들 것”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
말뿐인 과거 전철 밟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

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해야 한다”며 “그라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 왔다”며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비롯해 세 차례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 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 왔다”며 “그리고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고 역설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의 산업단지에 주거 시설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함과 아울러 1000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역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접근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는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께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과 늘 함께 할 것”이라며 “이제

는 지방시대다. 지방시대가 곧 기회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행사에 대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3차례에 걸쳐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예술 전하는 유통오너들... 새로운 시장기회·고객가치 창출

예술을 사랑하는 기업인들

단순 소장 넘어 전시·판매 활발
소비자 소통 강화 등 사업 시너지
“마케팅 넘어 ‘선한 영향력’ 확산”

최근 ‘아트마케팅’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 오너들의 남다른 미술품 사랑이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이다.

이들은 미술품을 소장하는 걸 넘어 갤러리를 구축해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등 사업적으로까지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미술품을 통해 소비자들과 소통하겠다는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이같은 행보는 고미술품을 수집했던 삼성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과 고

이건희 회장의 합작 ‘이건희 컬렉션’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우선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미술품 사랑은 업계에서 유명하다.

예술계는 서 회장에 대해 “경영인이 되지 않았으면 미술 평론가가 됐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실제로, 지난해 서 회장은 미국 미술잡지가 선정한 ‘세계 200대 미술품 수집가(컬렉터)’에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아트딜러, 경매장 전문가, 큐레이터 등 미술 관계자들이 세

계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컬렉터를 뽑은 결과다.

아트뉴스에 따르면 서 회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 한국 현대 미술품 구매를 위해 5년간 연간 20만 달러를 기부했다. 아울러 2018년 용산 신사옥에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을 이전 재개관하고 소장품 5000여점을 전시했다.

서 회장의 미술품 사랑은 아버지인 서성한 선대회장때부터 시작됐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 총괄 사장

지금은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이지만 1979년 선대회장이 구축한 태평양박물관에서부터 시작했다. 그 영향을 받은 서 회장은 이후 조선시대 달항아리 백자대호와 고려시대 불화 수월관음도 등을 소장하면서 과거 선대회장의 예술품 사랑이 조명받기 시작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 용산사옥, 설화수 용기 모두 서 회장이 특히 아낀 달항아리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 됐다.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을 디자인한 세계적인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형상보다는 달항아리가 가진 절제된 아름다움의 본질을 건축 디자인에 담았다”고 말한 바 있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도 재계에서 유명한 현대 미술품 컬렉터로 통한다.

박 회장은 30여 년 동안 근현대 미술품을 수집해왔다. 백남준, 문신, 이우환 등의 국내 작가들의 작품뿐 아니라 페르난도보테로 등 해외에서 내로라할 작가들의 작품들까지 종류만 수백 가지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韓 미술품 구매 20만弗 기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예술 작가 발굴·지원 힘써

정유경 신세계 百 총괄사장
갤러리 구축 등 문화생활 기여

특히 박회장은 미국 팝아트리스트 제프 쿤스의 ‘리본무는 매끄러운 달걀’을 가장 아끼는 소장품으로 꼽는다. 박회장은 강남에 위치한 하이트 사옥을 미술품으로 채웠다. 하이트를 방문한 관계자들은 흡사 갤러리같다고 말할 정도다. 뿐만 아니라 하이트가 보유하고 있는 블루헤런CC는 국내 골프장 중 가장 많은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블루헤런 CC를 가본 관계자는 그림뿐 아니라 조각, 설치물까지 다양한 눈이 호강했다고 평가한다.

박 회장은 비싼 작품만 수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가능성 있는 작가를 발굴해 지원하고 투자해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그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실제, 1973년 자살한 권진규 작가와 박 회장의 인연이 앞서 배경이 된다. 박 회장은 안타깝게 자살한 권 작가를 기리기 위해 사업과 미술 문화 재단을 설립한다. 이에 청담 하이트 사옥에 하이트 컬렉션이라는 전시 공간을 만들어 권 작가의 작품을 전시했다. 또 블루헤런 CC에 권 작가를 위한 미술관도 설립했다. 박회장은 30여 년간 권 작가의 작품 20여 점을 모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글로벌세아 사옥과 레스토랑에는 쿠사마야요이, 장미엘

오토넬, 우고 룬디노네, 이우환 등 국내외 미술 거장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정유경 신세계 총괄 사장은 예술 분야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수많은 미술품을 수집했던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 명예회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화여대 미술학과를 나와 미국에서는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한 것이 이런 내용을 증명한다.

정 총괄 사장은 미술품을 소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갤러리를 구축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며 소통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장으로까지 연결하고 있다.

정 총괄 사장은 신세계 화랑을 시작으로 갤러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세계 명품 본관에는 제프쿤스의 세이 크리드 하트 등 거물급 작가의 작품을 설치했다.

최근에는 업계 최초로 ‘프리즈 서울 2023’에 공식 파트너로 참가해 라운지를 운영했다. 정 총괄 사장은 라운지의 인테리어와 구조물, 제품까지 모두 적극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세계 편집숍인 ‘분더샵 청담’에 신세계 갤러리를 개관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치동에 위치한 S2A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에드가 플랜스의 한국 첫 개인전을 열고 있다.

그 외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도 미술에 관심이 많은 여성 오너다.

이 사장은 신라호텔에 박선기 작가의 대형 상설리에 작품을 설치해 신라만의 상징으로 구축했다.

이같은 유통업계 오너가들의 행보에 미술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에 갑자기 떠오른 건 아니다. 과거부터 오너가들은 미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의 전략일 수도 있다. 공통적인 건 이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용산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사옥 전경. 서경배 회장이 아낀 달항아리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 됐다. /아모레퍼시픽



신세계백화점이 프리즈 서울 2023에서 운영한 라운지 사진 /신세계백화점

KB금융그룹 | 국민의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 Pay로 결제 되나요? 됩니다!

다 되는 페이

KB Pay

준법감사인심익필 제 230609-02066-ADP (23.06.09)

KB 국민카드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여행할 때도 하나뿐인 내편

해외 수수료는 걱정 없는 편
환율 걱정 없이 환전하는 편
낮선 화폐도 두렵지 않은 편
그래서 이번 여행도 더 신나는 편

지금 떠나봐, **트래블로그로**
하나뿐인 여행으로!



18개국통화 환전
수수료 무료 (-12/31)



해외 ATM 수수료
부담 제로



해외 가맹점
수수료 면제



목표환율에 맞춰
자동 환전 가능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상품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카드 준법심의 A-23-1127 (2023.06.22~2024.05.31)

尹, 글로벌 기여국 '위상 강화'...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

유엔총회 참석 18~22일 뉴욕 방문
기조연설 통해 북·러 메시지도 낼듯
신 인공지능 디지털 질서 정립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22일
까지 유엔(UN)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
방길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비롯해
최소 30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뉴
욕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계기로 미국에
도착하는 18일(현지시간)부터 북마케
도니아·산마리노·세인트루시아·모리타
니아 등 최소 30여개국과 양자회담을
통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
지와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취임 후 58개
국과 49차례 양자회담을 실시했는데,
이번 유엔총회 참석으로 그 숫자는 크
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수교 이후 첫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유엔(UN)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길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비롯해 최소 30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지난해 9월 18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환송인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양자회담을 추진하는 나라도 10여개 있
고, 일부 국가들은 그룹으로도 만나 부
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
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일시 확정된 양자회담
일정은 30개 정도이며 다수 국가와 회
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예정"이라며 "이는 과거 해
외순방 중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해
보지 않은 총력외교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19일 대한민
국의 서아프리카 핵심 협력 대상국인
가나 대통령 부부와 오찬을 갖는다.

같은 날 오후에 윤 대통령은 안토니

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과 면담을 통
해 한국-유엔 간 협력방안,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국제현안, 북핵 문제 공
조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날도 윤 대통령은 공백 시간을 활
용해 콜롬비아, 모나코 등의 나라와 양
자회담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
부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김 여사와 함
께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순방 셋째 날인 20일 유
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번 유엔
총회 주제는 '신회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으로,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히고 2024~25년도 임기의 유엔안전
보장이사회(안보리)비상임이사국으로
서 활동 계획과 의지를 천명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북러 회담'에 대한 메시지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는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
번 북러 간 군사교류에 대한 적절한 분
석과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며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동맹 우
방국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별조치,
함께 취할 수 있는 다자간 조치 등에 대

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지난해 유엔
총회 참석 계기에 발표한 '뉴욕구상' 1
주년을 맞이해 뉴욕대에서 개최되는 디
지탈 비전 포럼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
서의 기본 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발표 계획을 알리고,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구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
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파라
과이 대통령 부부와 오찬을 갖고 저녁
에는 카리브공동시장(카리콤) 국가들
과 만찬을 진행한다.

순방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태평양
도서 지역 정상 및 태평양 도서국 포럼
사무총장과 오찬을 통해 지난 5월 태평
양도서국 정상회의를 통해 마련된 정상
간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협력 모멘텀을 확보해나간다.

김 차장은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 의
의와 기대 성과와 관련 "크게 글로벌 기
여 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 전개, 신 AI(인공지능) 디
지탈 질서 논의 주도로 요약된다"고 설
명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민주당 "이종섭 장관 탄핵 최고위서 결정"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열어
안보에 대한 불안 고려 의견
추진 여부 고려할 사항 많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해병대 채 상
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
핵안 발의 결정을 15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
련 보완 입법, 수사 당국의 언론사 압수
수색 등 현안을 논의했는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당론 결정을 하지 못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
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
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관련한)
토론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국방부
장관의 탄핵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
다. 내일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 탄핵에 대한 당내 이견
이 있다.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일치된 의견이지만 장관이 사의를 표명
한 상태이고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
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
명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
고,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안보 공백을 이

유로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
다. 신 의원의 인사청문회까지 시간이
아직 남아 있고 의석수 과반 이상을 점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 발
의와 처리는 가능한 상황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국
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탄핵이 가능하지만, 실제
추진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말
했다.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처
리되면, 현재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최종 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의
사퇴 및 교체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의 탄핵
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자 "해임, 탄핵,
특검, 이런 것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전
매특허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은 10·29 이태원 참사에서 시민의 안
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들어
주무부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바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박태홍 기자

대통령실 "러, 우크라전서 北 제공 무기 사용"

韓, 기조 변경 가능성에 부정적 입장

대통령실이 14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북한이 제공한 무기의 종류가 러
시아에 사용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
여졌다는 건 매우 오래 전부터 저희가
확인해온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대
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로켓

탄이 러시아에 공급되고 있다'라는 질
문에 "정보 사항이라 말하기엔 좀 그렇
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다만, 이 고위관계자는 전날(13일) 김
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
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
는다'는 한국의 기조가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우크라이
나에 안보·인도·재건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국과 양자 관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전황과정
에서 우크라이나에 도움되는 지원이 무
엇인지 심사숙고해 나온 1차적 패키지"
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주변 세력들이 어떤 행
동을 한다고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한
국 입장이 돌변해서 우리의 원칙과 접
근점이 바뀌는 것도 정상은 아닐 것"이
라고 선을 그었다. /박정익 기자

진보 정당 "거대야당 주도의 정치 퇴행"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비판
야4당 당 대표-의원단 공동 기자회견

진보 정당들이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되돌리려
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이를 '거대야당
주도의 정치 퇴행'이라고 규탄했다.

야4당(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
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선거법 개악 저지! 야4당
당 대표-의원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야당이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비례
성 강화의 원칙을 깨고,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 협
의체(원내수석부대표+정치개혁특별위
원회 간사)'를 통해 선거제 개혁 협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으로 알려져 22대 총선에서 당선을 노
리는 진보 정당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
이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3~6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비례대표제
선거를 하는 것으로, 실시되면 전국을
권역으로 하는 비례대표제보다 소수 정
당의 원내 진입이 어려워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4당은 전날(13일)부터 병립형비례
대표제 환원에 반대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함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
제 회귀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
에서 "거대 야당이 뽕뽕 뭉쳐 다시 한번
선거제 개혁의 열망을 좌초시키려 한
다"며 "겉으로는 '내전적 정쟁 끝내겠다'
외치면서 뒤로는 이전보다 한참 후
퇴한 권역별 병립 비례대표제를 들고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
과를 들었다는 야4당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박태홍 기자

오히려 양당의 극단 대결을 부추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이 필요할 때, 국회 안
밀실에 숨어 서로에게만 이익이 될 개
약안을 내세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당의 관계야말로 '적대적 공생관계' 그
자체"라며 "민주당은 위성 정당 핑계대
지 말라.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외치던
민주당의 결의는 어디로 갔나"라고 반
문했다.

야4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는 로텐더홀 앞 복
도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
다. 이후,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시작될
때 쯤 의총장 앞으로 이동해 피켓 시위
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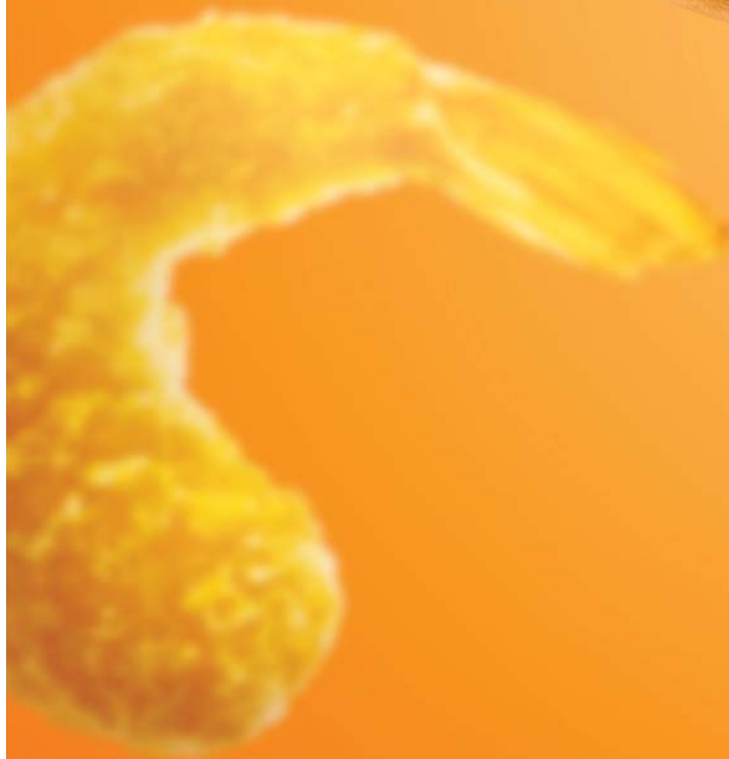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의
원총회를 시작하려고 하니 양해를 부탁
했으나, 야4당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시위를
계속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새우가 통! 싱글하게 빠지다

새우 Extreme 레몬크림

한정판



보험설계사, 10년전 보다 8만명 ↓ 인력영입 과열에 소비자 피해 우려

올 상반기 보험설계사 23.5만명
생명보험권 인력 감소 비중 최고
업계, 설계사 확보 경쟁 불 붙어
불완전판매·부당승환계약 가능성

보험업계의 설계사 확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불완전판매, 부당승환계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 수는 10년째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인력 확보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보험설계사의 수는 23만4576명이다.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8만1807명(25.8%) 감소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권의 설계사 인력 감소 비중이 더 높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설계사는 17만1591명에서 15만7835명으로 1만3756명(8%) 줄어든 반면 생명보험권의 설계사는 14만4792명에서 7만6741명으로 6만8051명(47%)이나 감소했다.

생보업계는 자회사형 보험대리점(GA) 설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영업력 확장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란 판단에서다.

이달 AIA생명 'AIA프리미어파트너스'란 이름으로 자회사형 GA를 출범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GA인 'HK금융파트너스'가 영업을 시작했다.

최근 보험설계사 확보 경쟁이 치열한 배경이다. 매년 보험설계사는 줄어드는 반면 영업장구는 증가하고 있어



보험업계의 설계사 확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스시

서다. 이달 AIA프리미어파트너스는 출범 직후 최대 연봉의 200%에 달하는 정착지원금을 제공하면서 설계사 확보 경쟁에 불을 붙였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인력 흡수라는 비판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동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 특히 보험계약 체결 후 모집 종사자가 회사를 옮길 경우 승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보험을 장기간 유지했을 경우 해지로 인한 손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보험상품의 경우 사전에 고지를 했더라도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다수인 만큼 추후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한 GA사 관계자는 "손보사의 상품은 보장 내역과 범위가 한정적인 만큼 이해하기 쉽지만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까다로워 가입자가 부당승환계약을 당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

언했다.

영업현장에서 보험설계사의 처우 개선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보험영업의 특성상 고정임금이 없으며 가입자가 보험을 해지해 환수금액이 발생하면 월급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영업에 익숙지 못한 초기 단계에서는 고정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반대로 설계사의 처우 개선과 소비자 피해 여부가 무관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보험설계사는 직원이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다. 고정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영업수당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본인의 역량에 따라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설계사에 고정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지도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저축은행중앙회

마이데이터 서비스 저축은행 38곳 참여

저축은행권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혁신금융의 일환으로 경쟁력 제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마이데이터사업자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이용 제휴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8일 서비스 운영을 시작한다. 저축은행 총 38곳이 사업에 참여한다. 해당 저축은행 거래고객은 'SB특특+'와 함께 참여 저축은행 자체 애플리케이션에서 제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디지털 금융경쟁의 경쟁력 제고 발판으로 삼는다. 향후 서민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데이터 활용 기반 신성장동력 발굴 및 확보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중·저소득층 및 서민이 소외되지 않고 신기술 금융시장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신한은행-STX, '글로벌 무역결제' 맞손

STX B2B 플랫폼 '트롤리고' 통해
공급망 금융 BaaS형 서비스 제공

신한은행이 STX와 글로벌 무역결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플랫폼 '트롤리고' 공급망 금융 BaaS형 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트롤리고(Trollygo)'는 원자재, 산업재, 의료기기 등 각종 기자재는 물론 항공정비, 무역컨설팅 같은 서비스까지 온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글로벌 B2B 플랫폼이다. 중소·중견 기업들이 손쉽게 새로운 거래처를 찾고 수출입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11월 오픈 되는 STX 글로벌 B2B 플랫폼 트롤리고에서 공급망 금융 BaaS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급망 금융 BaaS형 서비스는 기업의 플랫폼에서 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결제프로세스를 간소화함으로써 플랫폼 내 공급망 사용자들의 거래 편의성과 결제 안정성을 높이는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트롤리고에서 체결된 거래에 대한 실시간 결제 진행 정보를 트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글로벌 B2B 플랫폼 트롤리고 공급망 금융 BaaS 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왼쪽), STX 박상준 대표가 협약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롤리고에 제공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 고객의 사용 편의성과 결제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양사는 이후에도 다양하고 혁신적인 '공급망 금융 BaaS형 서비스'를 개발해 간편한 수출입거래, 무역거래의 전자상거래화를 추진한다.

또한 초기 수출기업 발굴, 수출 유망기업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해 은행과 기업 플랫폼은 물론 사용자까지 모두 상생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 구축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금융사 예적금 상품 광고시 최고·기본금리 표시 의무화

금융위, '고금리 미끼' 피해 최소화
우대금리 지급조건도 명확히 명시

앞으로 금융회사는 예적금 상품 광고시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도 표시해야 한다. 우대금리 지급조건도 명시해 가입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방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적금 상품 광고시 준수 필요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금융회사는 예적금 상품 광고에서 최고금리를 강조할 경우 기본금리도 같이 표시해야 한다. 기본금리는 우대금리 조건 이행없이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리수준을 말한다.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는 모두 광고위치,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이 균형을 갖춰 표시되어야 한다.

우대금리 지급조건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광고나 설명서에는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게시해 상품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채 가입하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추천 등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당첨확률을 명시해야 한다.

예컨대 '매 회차별 10계좌 추천'을 통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에는 당첨확률에 대한 정보없이 상품에 가입해야 했다. 앞으로는 당첨확률을 보고 가입해, 우대금리 적용가능성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만기시 받을 수 있는 이자금액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한다. 적금의 경우 일정 기간마다 납입하기 때문에 총 납입금액이 달라져 이자액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납입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사항을 은행, 저축은행, 신탁 등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뒤, 필요사항을 협의해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지난 13일 대전 EXPO타워에서 열린 '혁신성장 분야 정책지원 현장간담회'후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 일곱 번째)과 신보 임직원 및 기업체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보

최원목 이사장 "정책금융 사각지대 해소"

신보 혁신성장 정책지원 현장 간담회
중소·중견사, 성장 단계별 지원 부족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3일 대전 EXPO타워에서 '혁신성장 분야 정책지원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초격차산업, 미래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미래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혁신성장 분야의 최근 경영환경을 점검하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금융지원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갑용 코원테크 대표는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와 신보의 적극적인 정책금융 적시 지원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무사

히 극복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혁신성장 분야의 글로벌 진출과 시장 선점을 위한 보다 과감한 금융지원이 필요한 시기로 특히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초기 혁신중견기업에 대한 성장사다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원목 이사장은 "중소·중견기업은 창업·벤처기업과 같은 촉촉한 성장단계별 금융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정책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보가 먼저 정부 및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하나銀, K-택소노미 반영 ESG 금융 심사

'프로젝트 원'에 심사시스템 연결
2025년 ESG 정보공시 제도 활용

하나은행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반영한 ESG 금융심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K-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친환경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환경부 기준이다.

하나은행은 ESG 금융 심사시스템을 통해 기업금융 또는 직접투자 진행

시 ESG 금융 검토가 필요한 대상을 자동으로 판별한다. K-택소노미 적합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모니터링 결과 등은 금융지원 의사결정시 반영한다.

하나은행은 금융심사시스템을 은행의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프로젝트 원(O.N.E)'과 연결했다. 2025년 예정된 ESG 정보공시 제도에 활용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지역사회 바꾸는 '신기업가정신' 우시산 "고래 찾는 울산 만들 것"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기업)

ERT 참여 기업 76곳 → 803곳
최태원 상의 회장, 우시산 주무
3년간 폐플라스틱 102t 수거
노인 고용 등 지역일자리 창출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주도로 2022년 출범한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의 정신이 지역사회 곳곳을 변화시키고 있다. 전에 없던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업의 아이디어를 주목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ERT를 통해 활성화하고 있다.

14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ERT 참여 기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5월 출범 당시에는 76곳에 불과했던 참여기업은 현재 803개로 늘어났다.

ERT는 지난해 발표한 '기업 선언문'에서 ▲경제적 가치 제고 ▲윤리적 가치 제고 ▲새로운 기업문화 조성 등과 함께 '친환경 경영'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을 새로운 기업가 정신의 방향으로 꼽은 바 있다. 특히 친환경 경영,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꼽은 건 앞선 세대가 고속 압축성장을 거치며 간과했던 문제를 후대가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ERT와 최태원 회장이 주목한 기업은 울산의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기업 '우시산'이다.

2015년 가을 울산 남구청과 SK울산



변의현 우시산 대표가 우시산의 업사이클링 제품을 소개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허정윤 기자

CLX가 함께 진행한 '사회적 경제 창업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울산항만공사에서 만난 변의현 우시산 대표는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비닐을 재활용해 울산에 다시 고래가 찾아오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비쳤다

우시산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폐플라스틱 102톤(t)을 거둬들여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었으며, 지난해만 500ml 생수병 14만개 상당인 폐플라스틱 40.3톤을 수거했다. 이는 이산화탄소(CO2) 239.7t을 상쇄하는 양으로 30년생 편백나무를 4만625그루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고 알려졌다.

우시산의 활동은 업사이클 제품 제조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우시산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1명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노인 과 발달장애인이다.

변 대표는 "단순히 폐트병 재활용 제품 제작에 국한되지 않고 남들이 하지 않았던 분야들을 파고들어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SK이노베이션이 마케팅과 아이디어 제공 등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은 올해 3월 ERT 출범 1주년을 맞아 우시산을 직접 방문해 "신기업가정신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는 물론이고 사회가치를 창출하면서 기업가치도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확대됐다"며 "봉사활동, 기부활동뿐 아니라 사회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새로운 도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람보르기니, 韓 팝업라운지 첫 오픈 "디아블로SV, 경험해보세요"

창립 60주년 맞아 국내 팬 소통
디지털화 포부... "韓 시장 확대"

"경제 사정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새로운 기록을 기대하고 있다"

람보르기니 아시아태평양지역 프랜차이즈 스카르다오니 총괄은 국내 판매량 전망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람보르기니가 국내 팬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역사적인 모델과 함께 국내 작가와 함께 만든 그래픽 작품도 소개하며 지난 여정을 함께 돌아켜본다.

람보르기니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60주년 기념 팝업 라운지를 운영한다. 스카르다오니 총괄을 비롯한 람보르기니 주요 관계자들이 오픈을 축하했다.

스카르다오니는 이 자리에서 "한국에서 최초로 오픈한 이번 팝업 라운지는 지난 60년 간 끊임없이 진화해 온 람보르기니의 현재 모델과 상징적인 모델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라며 "한국의 기존 고객들은 물론, 람보르기니를 사랑하는 많은 팬들이 이곳에서 람보르기니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을 대표하는 그래픽 아티스트 범민 작가와 함께 만든 컬래버레이션 작품도 전시한다. 람보르기니 60주년과 함께 직선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과 강력한 퍼포먼스 등을 감각적으로 묘사해 창립 60주년을 함께 기념했다.

범민 작가는 "혁신의 아이콘인 람보르기니의 헤리티지를 기념하는 콜라보레이션 작품을 선보일 수 있어서 큰 영광"이라며 "이번 작품은 람보르기니의 진화와 혁신을 상징하며,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전통과 현대의 만남, 나아가 람보르기니의 미래를 열어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카르다오니는 인터뷰를 통해 람보르기니가 차주들에 유일무이한 가치를



(왼쪽부터) 람보르기니 서울 김종복 대표, 그래픽 아티스트 범민, 아태지역 CEO 프란체스코 스카르다오니



람보르기니 디아블로 SV

전달하는 점에서 국내 소비자들에 인기를 높이고 있다고 봤다. 다른 나라 대도시와 비교해 관리가 잘되는 도로도 장점, 교통 체증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꿈의 차'에 탑승해 도시와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봤다. 람보르기니 관계자는 람보르기니가 광고 모델을 기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소비자들에 브랜드를 대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국내 딜러사를 추가한 이유도 소비자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람보르기니를 직접 보고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 딜러사들이 전문적인 역량으로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람보르기니는 앞으로도 지속가능성은 물론,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디지털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2028년 준비 중인 전동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 중, 소비자들이 큰 스크린과 커넥티드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많으며, 최근 레부엘토에도 3개 스크린과 풀커넥티비티 기능으로 요구에 대응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김재용 기자 iuk@

SK하이닉스 DDR5 D램, 인텔 서버용 CPU 최고성능 뒷받침

양사 DDR5 생태계 백서 공동 발행
데이터센터 성능 획기적 개선 전망

SK하이닉스 서버용 DDR5 D램이 인텔 최신 서버용 CPU와 최고 성능을 낼 수 있음을 확인했다.

SK하이닉스는 인텔과 함께 DDR5 생태계 백서를 공동 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인텔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사파이어 래피즈)에 SK하이닉스 DDR5 D램을 탑재해 성능을 검증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인텔 사파이어래피즈는 이전 세대보다 성능 효율을 2.9배 높였고, SK하이닉스 DDR5 D램도 D



DDR5 생태계 백서. /SK하이닉스

DR4 대비 전력을 14.4% 적게 썼다. 전력 대비 성능으로는 정수 계산에서 1.22배, 부동소수점 계산에서 1.11배나 높았다.

양사는 검증 결과를 토대로 사파이어래피즈와 SK하이닉스 DDR5를 데

이터센터로 구축하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며 지속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운영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예상했다.

SK하이닉스 류성수 부사장은 "백서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인텔 CPU와 당사 DDR5가 적용된 서버를 사용하면, 이전 세대보다 더 적은 전력으로 더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가 구현돼 고객은 데이터센터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며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과 같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경우에 필요한 고용량 D램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용 기자

다임러트럭 코리아, 'e악트로스 600' 공개

20주년 간담회... 트럭커 2.0 비전 공유

다임러 트럭 코리아가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전동화 모델인 'e악트로스 600'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편안하고 깨끗한 트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다임러 트럭 코리아는 14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에서 '한국을 움직이는 당신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건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진출 20주년을 기념하며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미래 트럭 운송을 이끌 '트럭커 2.0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토니오 란다조 다임러 트럭 코리아 대표는 "다임러 트럭의 20년 성과와 향후 국내 성장 전략"에 대해 발표했

다. 먼저 안토니오 대표는 100만km 이상의 누적 거리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1호 메르세데스 벤츠 트럭을 언급하며 국내 시장에 처음 받을 디딘 순간부터의 이력을 강조했다.

안토니오 대표는 "다임러 트럭이 정비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피드백을 받았다"며 "차량 평가와 분석을 거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으나 울산의 서비스 센터를 열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엑사원·SDV 등 6개 분야 33개 발표

LG전자 SDC 2023

'융합의 가능성' 주제... 1000명 참여

LG전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미래를 고민했다.

LG전자는 14일부터 이틀간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소프트웨어 개발자 콘퍼런스 2023'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LG SW 협의회 주관으로, 의장사인 LG전자와 계열사들이 함께 만들었다.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기업 엔지니어 1000여명도 동참했다.

주제는 '융합의 가능성(The Possibilities of Convergence)'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 ▲모빌리티·자동차 ▲플랫폼·아키텍처 ▲SW기술·개발문화 ▲클라우드 ▲이머징테크 등 6개 분

야 33개 발표로 이어진다.

배경훈 LG AI연구원장과 자바 창시자 제임스 고슬링 AWS 전문엔지니어가 각각 엑사원 2.0 활용방안과 커리어 개발 경험 등을 소개하며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어서 개발자들이 최신 기술 적용 사례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눴다.

사업별로 업가전 2.0과 가전 소프트웨어 변화 방향,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구현을 위한 기술 로드맵 등도 발표했다.

LG전자 CTO부문 SW센터장 박인성 전무(사진)는 "미래준비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경쟁력"이라며 "개발자들의 자유로운 소통 기회를 늘려 소프트웨어 기술 융합에 속도를 내고 고객들의 다양한 공간과 경험을 연결하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의 변화와 도약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LG화학-伊 에너지社 대산에 HVO 합작공장 원료~제품 통합 생산

(충남) (수소화 식물성 오일)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정책 따라 2030년 HVO 수요 20%성장 전망 HVO 내재화로 원료공급기반 마련

LG화학이 친환경 인증 제품 생산에 필요한 바이오 원료 내재화에 나선다.

LG화학은 이탈리아 에니(ENI) SM (Sustainable Mobility)과 손잡고 충남 대산 사업장에 HVO(수소화 식물성 오일) 합작공장 설립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양사는 2026년까지 연간 약 30만톤 규모의 HVO 생산공장 완공을 목표로 한다. 국내에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통합 생산이 가능한 HVO 공장이 건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탈리아 최대 국영 에너지 기업인 에니(ENI) 그룹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바이오 연료,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지속가능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ENI SM은 HVO 중심의 친환경 연료 사업을 리딩하는 에니(ENI) 그룹의 자회사다.

양사는 지난 2월 HVO 합작공장 설립을 위한 주요조건합의서(HOA)에서 명한데 이어 현재는 기술 타당성 및 경제성 평가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HVO는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바이오 연료로 기존 바이오 디젤이 1세대 연료라고 한다면 HVO는 '2세대 바이오 디젤'로 불린다. HVO는 폐식용유 등의 식물성 원료에 수소를 첨가해 생산하며, 저온에서도 얼지 않는 특성이 뛰어나 차량용뿐만 아니라 항공유 및 석유화학 원료로도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세계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친환경 항공유·디젤 사용 의무화 등에 따라서 수요가 진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다.

특히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친환경 항공유·디젤 사용 의무화 등에 따라 HVO의 세계 시장 수요는 2021년 970만톤(t) 규모에서 2030년 4000만톤 규모로 연평균 20%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G화학 측은 "이번 협력은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식물성 오일 적용 제품 확대와 이를 위한 친환경 원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LG화학, 차세대 바이오 연료 사업을 아시아 및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려는 ENI SM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합작법인이 설립되면 LG화학은 HVO 내재화를 통해 바이오 SAP(고흡수성수지)·ABS(고부가합성수지)·PVC(폴리염화비닐) 등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공급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LG화학은 식물성 원료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수단인 ISCC Plus 국제 인증 제품을 현재 50여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ENI SM은 현재 유럽 내 구축된 HVO 생산거점, 원재료 공급망,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 등을 토대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합작공장 설립에 따른 HVO 생산능력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은 "친환경, 저탄소 원료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탄소 감축 분야에서 선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SK C&C '센테로'로 18.7만t 탄소 감축

기업 주도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19건 프로젝트, 크레딧 발급 지원

SK C&C가 기업 주도의 자발적 탄소 시장을 조성해 18만t 이상의 탄소감축 효과를 거뒀다.

SK C&C는 탄소 인증 및 거래 플랫폼 '센테로'를 통해 총 19건의 자발적 탄소감축 크레딧 발급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센테로는 제조·화학·에너지·IT·건설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총 19건의 프로젝트를 통해 총 18만6595 크레딧 발급을 지원했다.

SK C&C 관계자는 "1크레딧이 탄소 감축량 1톤에 해당되기 때문에 센테로를 통해 총 18만6595톤에 달하는 탄소 감축 효과가 증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 시장은 정부가 규제하는 의무적 시장과 기업이나 기관, 개인들이 참여하는 자발적 시장으로 구분된다.

의무 시장에서 기업들은 정부가 관

리하는 거래소에서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며 정부가 지정한 탄소 할당량을 준수한다.

반면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자발적 시장은 민간이 정부 규제 없이 탄소 감축 사업을 추진해 감축량 인증을 받아 획득한 탄소 크레딧을 거래한다. 이 탄소 크레딧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탄소 감축량으로 인정받는다.

센테로는 자발적 탄소 감축 인증기관 프로세스에 맞춰 탄소감축 프로젝트와 크레딧 거래까지 수행한다. 또한 자발적 탄소감축 프로젝트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관리하는 것부터 탄소 감축 크레딧 관리까지 통합 지원하는 점도 강점이다.

기업들은 센테로의 탄소 중계마켓 플레이스에서 탄소 감축 크레딧을 거래할 수도 있다. 거래된 크레딧은 탄소 중립 실천과 넷제로 달성에 필요한 탄소 상쇄에 활용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현대모비스, 북미시장 공략 가속화

'트레일러 자율주행' 등 21종 신기술 공개

북미연구소서 오픈하우스 행사 고객 밀착영업으로 수주 가속화

현대모비스가 북미 시장에 특화된 기술을 앞세워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트레일러 후방주행보조, 생체 신호 기반 운전자모니터링 기술 등 현지 상황에 맞는 기술을 앞세워 수주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현대모비스는 미국 디트로이트에 위치한 북미연구소에서 미시간주 부지사 갈린 길크리스트 2세와 GM, 스텔란티스 등 완성차 고객사 150여 명 등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현대모비스는 현지 시장에 특화된 신기술을 소개하고, 주요 기술의 실차 시연, 연구소 투어 등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의 관심을 크게 끈 것은 트레일러 후방주행 보조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트레일러를 장착한 차량이 후진 시 후방카메라 영상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운전대를 조작해서 주행하는 기술이다. 국내와 달리 픽업트럭 수요가 높고 트레일러를 장착하는 경우가 많은 북미 시장 특성



현대모비스가 미국 디트로이트 북미연구소에서 현지 고객사와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했다. 미시간주 부지사 갈린 길크리스트 2세가 방문에 관련 기술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을 고려한 기술이다. GM 등 북미 완성차 업체들은 트레일러 주차 보조시스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행사에서 GV60에 이 기술을 장착해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대모비스는 생체 신호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픽업 트럭용 전자식 주차브레이크 등 기술도 소개했다. 이 같은 기술들은 모두 현대모비스 북미연구소에서 현지 특화 기술로 개발 중이다. 연구개발 현지화로

고객 맞춤형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다. 현대모비스가 이번 오픈하우스 행사에서 선보인 기술은 총 21종에 달한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북미 시장에서만 22억8000만달러(약 3조258억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북미 시장은 해외 수주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곳"이라며 "향후 현지 고객사 대상 테크데이 등 고객 밀착형 영업을 강화해 북미 수주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왼쪽부터) 정래호 한전KPS 전력사업처장, 김범수 한국도시가스협회 안전솔루션실장, 임주혁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장, 이현목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지원처장, 류제택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안전사업이사, 윤형식 SKT 인프라 고객CT담당, 최원호 SKB 인프라운영담당, 강동호 SK E&S 도시가스운영본부장, 임성준 LG유플러스 NW인프라운영그룹장, 서영수 KT 네트워크운영본부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통신3사

이통3사, 건설기계로 인한 통신시설 피해 예방 힘 모은다

가스안전공, 한전 등 10개사 참여 안전 교육 교재개발·홍보활동 추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건설기계로 인한 통신시설 손상을 막기 위해 인프라 피해 방지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동통신 3사는 건설 기계로 인한 통신·가스·전력시설 안전 사고 및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이동통신 3사를 포함해 SK브로드밴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

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전KPS, SK E&S 등 10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공사 중 건설 기계로 인한 통신·가스·전력시설 손상으로 시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10개 기관과 기업은 매년 30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 교육에 필요한 교재 개발 및 교육과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홍보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형식 SK텔레콤 인프라 고객CT담당(부사장)은 "협약에 참여한 10개 기

관 및 기업은 시설물 피해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수 KT 네트워크운영본부장 상무는 "협약한 주요 기관과 한층 더 강화된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한 통신 시설 보호로 네트워크 안정 운용에 빈틈이 없도록 해 KT의 통신과 ICT를 단단히 하겠다"고 했다.

임성준 LG유플러스 NW인프라운영그룹장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카카오 '안정적 IT서비스' 보고서 발간

카카오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IT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카카오는 14일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대책과 실천 과제 등을 상세하게 담은 '카카오 안정성 보고서(Kakao Reliability Report)'를 발간해 카카오 기업 사이트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카카오의 ▲모니터

링 시스템 ▲체계적 장애 대응 ▲장애 모의훈련 ▲정보 보호 실천 ▲다중화 시스템 ▲BCP(Business Continuity Plan) 및 신규 데이터센터 관련 내용을 차례대로 담고 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등 주요 공동체의 정보 보호 관리 체계와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다중화 시스

템 등의 노력도 같이 소개했다.

카카오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점검 및 장애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카카오톡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간 서비스 대시보드(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해 복합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체계적인 장애 대응을 위해 정기 훈련과 함께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되는 비정기 훈련도 실시한다.

/구남영 기자



MONTES ALPHA

A TOUCH OF GRACE

나의 첫 와인 몬테스 알파

NARA
CELLAR

※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하반기 IPO 대어 온다... 사상 첫 '따따블' 주인공 될까

두산로보틱스

내달 유가증권시장 상장 앞둔
“단기적 B2B 로봇 시장 선점
장기적 B2C 사업확장해 성장”

국내 1위 협동로봇 제조사 두산로보틱스가 내달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 두산로보틱스가 하반기 대어로 꼽히고 있는 만큼 사상 처음으로 상장 첫날 공모가의 400%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류정훈 두산로보틱스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간담회에서 “다양한 산업 및 사람들의 생활에 안전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협동로봇 시장과 당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상장을 통해 회사는 단기적으로는 B2B(기업 간 거래) 로봇 시장을 선점하고 장기적으로는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로 사업을 확장해 글로벌 종합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에 설립된 두산로보틱스는 주요 사업 영역인 협동로봇을 기반으로 다양한 솔루션 패키지 및 플랫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의 핵심 사업모델인 협동로봇은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며 물리적으로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이다. 두산로보틱스는 전 직원의 약 40%를 연구개발(R&D) 인력으로 구성해 기술 고도화에 집중해 왔으며 특히 업계 최고 수준의 민감도 및 충격 저항을 자랑하는 로봇이다. 이에 따라 두산로보틱스의 협동로봇은 타사 대비 독보적인 정밀 작업 수행 능력을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류정훈 두산로보틱스 대표가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보유하고 있으며 ISO 안전 인증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PLc, Cat4 인증도 선제적으로 획득하며 높은 기술력을 입증했다. 2018년 제품 출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는 물론 글로벌 시장(중국 제외) 4위를 달성했다.

두산로보틱스는 오는 15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오는 21~22일 일반 청약의 문을 열어 다음달 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이번 상장에서 두산로보틱스는 1620만주를 공모한다. 공모예정가는 2만1000원~2만6000원으로, 예상공모 금액은 약 3402억~4212억원이다. 상장 뒤 예상 시가총액은 1조3612억~1조6853억원 수준이다. 두산로보틱스는 상장 후 유입된 자금을 해외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과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봇 제품군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바뀐 IPO 제도에 의해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이 공모가의 60~400%까지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두산로보틱스의 상장 첫날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에 쏠리고 있다.

두산로보틱스의 공모가가 최상단인 2만6000원으로 확정돼 따따블(공모가 대비 4배)을 달성할 경우 주가는 상장 첫날 최고 10만4000원까지 갈 수 있으며 시가총액은 6조7413억원으로 불어난다.

최근 고평가 논란도 나오고 있지만 두산로보틱스는 국내 로봇 대장주인 레인보우로보틱스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산로보틱스의 시가총액 산정이 로보틱스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투자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올해 상반기 매출 69억원, 영업손실은 233억원이지만 현재 시가총액은 3조8000억원에 달한다. 두산로보틱스도 올해 상반기 9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매출은 237억원으로 레인보우로보틱스의 3배 이상이다.

증권업계에서도 두산로보틱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시장에서 로봇 관련 종목의 시가총액 흐름을 감안할 때, 두산로보틱스도 상장 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목표주가의 상향 조정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산업 홍보·현안 논의

스위스·영국·독일 등 방문

젤III 이행현황 등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한국 금융산업 국제화 지원 및 글로벌 금융감독 현안 논의를 위해 스위스와 영국, 독일 등을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원장은 먼저 지난 11에는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와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GHOS)에 참석했다. 최근 미국 및 유럽 은행사태에 대해 향후 BCBS 차원에서 추진하게 될 후속 업무계획을 승인했으며, 회원국별 바

이 원장을 비롯한 바젤위원회 최고 위급 참석자들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감독을 통해 은행의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고 조속히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속 업무계획으로 감독 강화를 우선 추진하고, 바젤규제가 은행사태 기간 중 당초 의도대로 작동했는지 평가하기 위한 분석작업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지난 13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금융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투자설명회(IR)에 참석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투자유치 등을 지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왼쪽부터)코리안리 대표 원종규, NH투자증권 대표 정영채,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부산시 행정부시장 안병운, 주영국 한국대사 윤여철,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서울시 정무부시장 강철원, 신한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미래에셋증권 대표 최현만, 삼성생명 사장 박종문. /금융감독원

분양가 또 오른다... 기본형건축비 1.7% ↑

건설 자재비·인건비 인상 등 반영

으로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레미콘(7.84%), 창호유리(1.00%), 철근(-4.88%) 등 자재가격 변동과 보통인부(2.21%), 특별인부(2.64%), 철근공(5.01%) 등 노임단가 변동이 반영됐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6개월 만에 1.7% 오른다.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1.7% 상승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SK이노 등 고금리에 쏠아지는 ‘유상증자’

CJ CGV·한화오션 등 계획 발표
채무상환 계획 포함... 주주 반발 ↑
투자자 투심 반감에 주가 하락도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재무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 기업들이 이자 없는 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에 나서고 있다. 기존 주주들의 반감이 높은 가운데, 확충된 자금으로 채무 상환하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미끄러움을 탄 모습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J CGV·SK이노베이션·한화오션 등 대기업 계열사들을 비롯해 다수의 대기업들이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다만 미래 먹거리 투자보다는 자본 확충을 통한 사업 자금 조달과 채무 상환 용도가 상당해 주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주식을 신규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유상증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기존 주주들에게는 주식 발행량 증가에 따른 기존 지분의 가치 희석 가능성이 높아진다.

전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한화오션도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

◆미래 투자 아닌 채무 상환용 유상증자... 주주들 ‘절레절레’

SK이노베이션과 CJ CGV는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중 각각 3156억원, 2253억원씩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겠다고 전해 주주들의 우려를 샀다. 실제로 미래 투자보다는 빚 갚기용 유상증자가 진행됐다는 인식 때문인지 투자자들의 투심이 반감되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CJ CGV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 직후인 6월 21일 전장(1만131원)보다 21.1% 하락했으며, 14일 기준으로는 20% 감소한 7800원에 장을 마감했다. SK이노베이션의 사정도 비슷하다. 유상증자가 결정이 반영된 6월 26일 6.0%가 하락했으며, 13일 청약 미달 공시 이후에는 4.25% 가량 떨어졌다. 최종적으로 6월 23일과 비교해서는 9.7%가 떨어진 셈이다.

다만 한화오션은 재무 구조 개선이 아닌 미래 투자 의지를 보이면서 유상증자 결정이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신하은 기자 godhe@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우리사주조합과 기존 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률이 87.66%를 기록했다. 보통주 819만주 중 717만9664주만 청약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101만336주는 오는 14, 15일에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지난 6월 CJ CGV도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5700억원을 조달하고, 이외 4500억원 가량을 최대주주 CJ를 대상으로 한 제3차 배정 유상증자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전한 바 있다. 이외

‘최고’ 타이틀로 차별성 내세운 청약시장

최초·최대 앞세워 마케팅 박차

지는 지역 내 최고층이자 에코시티 최초의 수자인 단지라는 점을 부각, 성과를 냈다.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 지역내 ‘최초·최고·최대’ 타이틀을 앞세워 마케팅에 나선 아파트 단지들이 주목된다. 건설사들은 다양한 타이틀로 수요자의 호응을 이끌고 분양성적을 높이기 위해 분주하다.

실례로 전북 전주시에서 최고층인 48층으로 공급된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은 역대 최고 평균 경쟁률인 85대 1을 기록했다. 해당 단

또 부산 남구에서 선보인 ‘대연 디아이엘’은 단일 아파트로는 최대 규모 단지는 점을 내세워 성공했다. 경기 파주시에 처음으로 공급된 e편한세상 브랜드 단지 ‘e편한세상 헤이리’는 C2 하우스, 헬스케어서비스 등 지역에서 볼 수 없던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규성 기자 peace@

“식족평천 일념... 식품수출 1위 성과

(食足平天:먹는 게 족하면 천하가 태평하다)

음식-과학 융합 ‘진화 식품’ 개발”

삼양라운드스퀘어 ‘비전선포식’

“올해는 ‘삼양라면’이 세상에 나온 지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먹는 게 족하면 천하가 태평하다는 ‘식족평천’의 일념으로 설립된 삼양식품은 오늘날 식품 수출 1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제의 성공이 미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식품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변화를 주도하고자 합니다.”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은 14일 오전 종로구 익선동에서 열린 ‘삼양라면 출시 60주년 기념 비전선포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전선포식에는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이사, 전병우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략기획본부장(CSO), 정우종 삼양애니 대표이사 등 그룹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그룹의 공식 명칭 변경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정사각형과 원이 겹쳐 그려진 새로운 CI도 공개했다.

김 부회장은 “가까운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우리는 멀리 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인간백화천세우’ (인간은 100년을 살지만 1000년 뒤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창업주의 말을 되새겨보곤 한다”며 음식과 과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현시대가 필요로 하는 한 단계 더 진화된 식품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공개했다.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 부문별 전략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한 맞춤형 식품 개발 ▲식품성 단백질 ▲즐거움 식문화를 위한 콘텐츠 플랫폼 및 글로벌 커머스 구축 ▲탄소 저감 사업 역량 집중 등을 제시했다.

먼저 삼양스퀘어랩(전 삼양중앙연구소)은 마이크로바이옴(장내 미생물) 등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 맞춤형 식품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음식으로 질병을 예방



삼양라운드스퀘어 비전선포식에서 (가운데 줄 왼쪽부터) 정우종 삼양애니 CEO, 전병우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략기획본부장(CSO), 김정수 삼양라운드스퀘어 부회장, 김동찬 삼양식품 CEO, 김홍범 삼양스퀘어랩 연구소장, 김명진 삼양식품 CMO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명칭 ‘삼양라운드스퀘어’로 변경 식품성 단백질 등 4대 전략 제시 푸드케어·웰니스 프로그램 추진 유튜브 중심 K-푸드 콘텐츠 제작 ‘이더테인먼트’ 실현해 나가기로

하는 ‘푸드케어’를 실현할 계획이다.

동시에 삼양라운드힐(전 삼양목장)은 올바른 식품 섭취를 통해 우리 몸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 예방적 해결법을 제시함으로써 삼양라운드힐을 예방의학의 중심지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식품성 단백질인 콩에 대한 기술연구를 강화한다. 이를 활용해 대체육뿐 아니라 단백질을 강화한 라면, 밥, 과자, 두부나 팔라펠처럼 고기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단백질 HMR 등 식품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홍범 삼양스퀘어랩 연구소장은 “의료기관과 협력해 장내 미생물 데이터 구축을 시작했고 이를 활용한 식품 개발도 진행 중”이라며 “개개인의 유전자 등 인체 데이터를 총망라한 종합 데이터를 구축해 식품 개발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양애니는 한국 음식의 매력을 디지털 콘텐츠와 e커머스의 영향력을 통

해 확산시켜 글로벌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우종 삼양애니 대표이사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푸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K-푸드가 일상의 도전이자 즐거움이 되는 ‘이더테인먼트’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정수 부회장의 장남인 전병우 삼양라운드스퀘어 전략기획본부장(CSO)이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사업 방향성 설명 및 탄소 저감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발표를 진행했다.

전 본부장은 “식품성 단백질 사업이 기후변화와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매개체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응용 제품 연구를 통해 원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더 쉽게 수용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겠다. 60년 전 존재하지 않았던 라면처럼 새로운 식문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 최대 규모인 600만평의 삼양라운드힐에서 풍력 에너지뿐 아니라 목장 내 토지와 토양관리를 통해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고정시키는 능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진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신세계백, 협력중소 100곳에 ESG 컨설팅

전문 컨설턴트가 6~8개월 진단·교육

지원을 받는다.

신세계백화점이 업계 최초로 동반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지원한다.

14일 동반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협약을 통해 협력사 중소기업 중 100여 곳에 ESG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안전·친환경 등 ESG 가치를 협력사로 확산해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먼저 ESG 경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전문 컨설턴트가 6~8개월간 맞춤형 진단과 교육을 실시한다. 선정된 기업은 동반위의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된 ESG 지표를 기반으로 ESG 교육과 진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 종합적인

신세계백화점은 메세나 활동도 이어간다. 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한빛예술단 음악회 후원에 나선다. 한빛예술단은 2003년 창단한 세계 유일의 시각장애인 연주단으로, 지휘자와 악보 없이 전곡을 통째로 외우는 암보로 공연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상반기 창업기업 65만곳... 부동산 47% ↓

중기부, 상반기 창업기업동향

6229개(2.9%)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 고객 대면 업종 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비대면 관련 업종 증가세도 여전했다.

아울러 2020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증가했던 부동산 창업은 전체 창업 증감률에 미치는 영향이 컸지만 점차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1~6월) 창업기업동향’ 자료에 따르면 65만504개가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과 비교해 4만5387개 감소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대면업종 생산이 확대되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18.3% ↑), 개인서비스업(10.1% ↑) 등이 전년 대비 신규창업이 늘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업의 신규 창업이 전년 동기 대비 6만1616개(47.3%) 줄어든 것이 상반기 창업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올해 상반기 창업은 전년 동기 대비 1만

또 고금리, 원자재 상승, 국내외 경기부진 지속에 따른 투자 축소, 수출감소 등으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3.4% ↓), 건설업(10.4% ↓), 운수·창고업(10.3% ↓) 등 창업은 줄었다.

/김승호 기자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동양 본사에서 (왼쪽 2번째부터) 동양 배현석 본부장, 카본큐어 로버트 니븐 CEO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진그룹

동양, 저탄소 레미콘 생산... ESG경영 탄력

캐나다 카본큐어와 기술계약

가 시멘트와 반응해 탄산칼슘을 형성, 레미콘의 강도를 향상시키는 원리다.

유진그룹 계열 동양이 친환경 저탄소 레미콘 생산으로 ESG 경영을 강화한다.

시멘트 사용량을 4~6% 가량 절감하면서도 동일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시멘트 소비량을 감소시켜 시멘트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레미콘에 혼합된 이산화탄소는 영구적으로 콘크리트 내부에 저장할 수 있어 친환경 탄소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저감된 탄소를 탄소배출권으로 거래할 수 있어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14일 동양에 따르면 친환경 콘크리트 기술을 보유한 캐나다 카본큐어(CarbonCure)와 기술계약을 맺고 국내 레미콘 업계 최초로 저탄소 레미콘을 생산할 수 있는 카본큐어 시스템 구축을 끝냈다.

유진그룹은 지난 2021년부터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카본큐어와 기술도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카본큐어 기술은 레미콘 생산과정에서 액화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액화이산화탄소를 레미콘 혼합과정에서 분사하면 결정화된 이산화탄소

/김승호 기자

지난달 ICT 수출 16.7% ↓... 14개월째 감소

산업부, 수출액 160억5000만 달러
지난 4월 최저치 이후 점진적 회복세
반도체 21.1%, 휴대폰 12.2% 하락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4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단가 약세와 ICT 기기 수요회복 지연 등 영향이 지속된 결과다. 수출 감소는 다만 4월 저점 이후 점진적 회복세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8월 ICT 수출은 160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7% 감소했다. ICT 수출 감소는 작년 7월 -0.9%를 기록한 이후 지난달까지 14개월째 감소다. 다만, 올해 4월 최저(-35.9%)를 찍은 이후 첫 10% 감소로 완회되는 등 점진적 개선 흐름이다.

품목별로 보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21.1%)를 비롯해 휴대폰(-12.2%), 컴퓨터·주변기기(-47.4%), 통신장비(-9.5%) 수출이 감소했고, 디스플레이 수출만 1.8% 소폭 상승했다.

반도체의 경우, 업황 회복 지연과 메모리 단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시스템(-14.9%), 메모리(-26.1%) 수출이 동시 감소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 감소 폭은 올해 1월 저점 이후 점진적 개선 양상이다.

디스플레이는 모바일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 확대가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며 15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주요 휴대폰 생산 기지가 위치한 베트남 수출이 22.3%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에 힘입은 베트남(+1.7%)이 1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하며 일본(+13.0%)과 함께 증가했으나, 중국(홍콩 포함, -20.6%), 미국(-29.5%), 유럽연합(-20.0%) 등 감소세는 지속됐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우 중국 경제 불안요인 확대로 생산, 소비 회복이 지연되며 반도체(-20.6%), 디스플레이(-20.8%), 휴대폰(-13.0%) 등 주요 품목 수출 모두 감소했다.

ICT 수입은 110억7000만달러로 ICT 수요 회복 지연에 따른 반도체 등 주요 부품 수입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8.1%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9억8000만달러(잠정 수치) 흑자를 기록했다.

/세종=한음수 기자 hys@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절감 지원' 내년 2배이상 늘린다

산업부,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확대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등 강화

| 경영응원 3종 패키지 효과 | | | | |
|----------------|------------------|--------|--------|--------|
| | 지원내용 | 수혜인원 | 인당절감효과 | 지원규모 |
| 에너지비용 | 고효율냉난방기 4.5만대 | 6.4만명 | 10만원 | 1100억원 |
| | 냉장고문달기 1.5만대 | | | |
| | 수열히트펌프 등 0.4만대 | | | |
| 금융비용 | 대한대출 (11%→4% 수준) | 1만명 | 390만원 | 5000억원 |
| | 경영안정·재해복구자금 | 1만명 | 66만원 | 3000억원 |
| 보험료 |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 4만명 | 40만원 | 100억원 |
| | 합 계 | 12.4만명 | 506만원 | 9200억원 |

자료/산업부

를 통해 소상공인 12만명에게 인당 최대 500만원 절감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은 이달 13일까지 총 1만1300건 접수됐고, 4610건이 교체를 완료했다. 이 중 7월에 교체 완료된 110개 매장을 분석한 결과 8월 청구분 기준 전기사용량이 전년 대비 평균 2.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고,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매장과 비교시 약 14.2% 절감 효과가 있고, 약 231키로와트시(kWh)의 전력사용량과 요금 4만2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사업도 지난달 7일부터 식품매장을 중심으로 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추가 지원 대상 발굴을 위해 편의점과 주

요 식품업체 등을 대상 홍보도 지속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예산 정부안에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400억원을 포함해 내년 사업예산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방안에 대한 참석자들 간 논의도 이뤄졌다.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은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안정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20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에 포함된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업종별 특화품목 발굴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韓-스리랑카 고용노동분야 협력 추진

이정식 장관, 총리·국회의장 면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14~15일(현지시간) 스리랑카를 방문해 양국 간 고용노동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펼친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산업현장 인력난으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도입·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이번 방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방문 첫날 디네쉬 구나와르데나 스리랑카 총리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고용허가 확대, 개발협력을 위한 공적개발원(ODA) 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중요한 우방국인 스리랑카와의 고용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5일에는 마힌다 아베와르다나 국회의장과 만나 고용허가제 등 양국 고용노동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스리랑카의회의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근무했던 수다스(국내 방송 및 언론사 인터뷰 참여) 등 귀국근로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한국에서의 근무경험과 귀국 후 성공사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다. 향후 고용부는 귀국근로자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 고용허가제 운영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스리랑카에서 올해부터 시행 중인 뿌리기업 기능특화훈련사업의 교육훈련 기관을 방문한다. 이 장관은 한국어교육을 받는 훈련생들을 만나 격려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환경부, 청년 창업교육·멘토링 등 지원

녹색인재양성 교육 기회 제공
융자·펀드 통한 자금 지원도
청년 관련 예산 5347억 책정



/환경부

(인턴)과 세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견습생(인턴) 참여를 통해 채용기회를 확대한다.

셋째,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보좌역(1명) 채용하고 2030자문단(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보좌역은 '19~34세 청년'이 채

용 대상이며 '전문임기제 공무원 다급'으로, 15~25일 지원 가능하다. 채용공고문은 환경부 누리집(me.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문단은 20대와 30대가 중심이 돼 청년세대의 인식을 청년보좌역에게 전달한다. 보좌역과 함께 정책 제언, 정책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올해 하반기 중 채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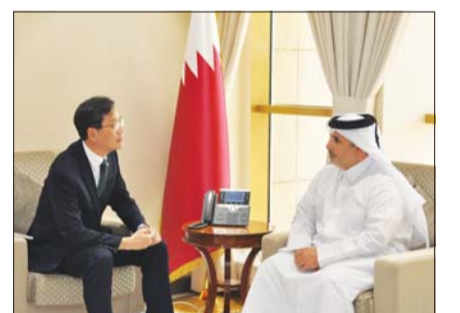
환경부는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으로 5347억7100만 원을 책정했다. 올해 대비 38% 증가한 규모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녹색산업 유망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자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 열린 환경산업 일자리박람회(5월16일)와 일자리축제(6월26일)와 같은 양질의 취업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韓-카타르 스마트농업 투자·교류 '맞손'

한훈 차관, 카타르 자치행정부 장관 면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3일(현지시간) 카타르에서 알 수베이 카타르 자치행정부 장관을 면담하고 있다. /농식품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3일(현지시간) 중동 카타르에서 알 수베이 카타르 자치행정부 장관을 면담하고,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투자 활성화 등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카타르는 전통적으로 농산물 수입량이 많은 국가이나 최근 식량안보전략을 수립하는 등 식량 자급률 향상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 스마트농업 분야의 진출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한 차관은 스마트농업 분야의 국내기업이 카타르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투자 활성화 및 경제실무단 교류 등 협력을 요청하고, 한국이 도하 국제원예박람회에서 스마트농업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 수베이 장관은 한국의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참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국의 우수한 스마

트농업 기술력을 토대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 차관은 “카타르는 온실 시장 규모가 2027년까지 약 4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등 스마트농업 수출이 유망한 국가 중 하나”라며 “앞으로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양국 간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차상근 기자 skc8472@

농진청 '스마트강소농 추석 선물전' 진행

회원가입 한 번에 어디서나 전기차 '충전'

'전기차 이음' 서비스 업무협약

환경부가 14일 국내 86개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충전기시스템인 '전기차(EV)이음' 서비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운전자는 '로밍'을 통해 각 충전시설 사업자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도 충전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6월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전기차 충전기반(인프라) 시설 구축 확대 및 안전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이다. 협약식은 서울 중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됐다.

환경부는 “단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전국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협약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충전사업자 86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현재 국내 전체 충전기의 99.8%(25만5100기 중 25만4600기)를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는 개별업체마다 충전 전용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회원가입만 하면 추가 조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충전기 로밍시스템에 대해 한글명칭을 공모(올해 7월24일~8월7일)한 바 있고, '전기차이음'이 선정됐다. 충전하는 동안 '전기차-충전기-사용자'를 하나로 이어주고 충전 편의성을 높여 대중화를 앞당긴다는 희망의 의미가 담겨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에 더해, 실물 충전카드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 개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24일까지 온라인상점 '레알리마켓'

농촌진흥청은 네오게임즈와 협력해 15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상점 '레알리마켓'에서 '스마트강소농 추석 명절 선물전'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실속있는 선물을 주제로 전국 15개 지역 강소농이 생산한 2만~6만 원 대의 농산가공품을 선보인다.

주된 상품은 ▲전통 과자(한과, 정과, 전병, 양갱, 편강 등) ▲꿀·청·차(벌집꿀, 아까시꿀, 감로꿀, 오미자청, 매실 원액, 여주차, 도라지차, 우영차, 생

강차 등) ▲전통 장·기름(고추장, 된장, 간장, 참기름, 들기름) ▲과일·버섯(사인머스켓, 표고버섯, 곱감, 녹각염지진액 등) 등이다.

'레알리마켓'은 네오게임즈의 온라인 농산물 상점으로 농진청은 지난해 2월 국내 육성 품종(국내 재배 포함) 농산물과 가공품 등을 홍보, 판매하고 있다.

조은희 농진청 기술보급과 과장은 “이번 명절에 우리 농산가공품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 집중호우와 불볕더위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차상근 기자



2024 송실대학교 수시모집



- 원서접수 : 9.12(화) ~ 15(금)
- SSU미래인재전형 면접 : 12.1(금)
- 논술고사 : 11.18(토)
- 정보보호특기자, SW우수자, 기회균형전형 면접 : 12.2(토)

‘비비고 김스낵’ 영국 본격 상륙 K-푸드 글로벌 영토확장 돌입

CJ제일제당, 건강스낵 시장 공략
아스다 등 오프라인서 판매 시작
9개월간 유럽 시장서 61% 성장

CJ제일제당이 ‘비비고 김스낵(Sea weed Snack)’을 앞세워 영국 건강스낵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CJ제일제당은 영국의 대형 유통체인인 아스다(Asda)와 오카도(Ocado)에서 ‘비비고 김스낵’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영국 전역에서 온 오프라인을 통해 비비고 김스낵을 만날 수 있다. 기존에는 현지 스낵 채널 위주로 판매됐는데 더 많은 소비자가 비비고 김스낵을 구매해 즐길 수 있게 된 셈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10월 영국에 스틱 형태의 ‘비비고 김스낵’을 출시한 바 있다. 올해 7월까지 유럽시장에서 비비고 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1%나 성장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 입씩 베어먹을 수 있는 간편한 형



유럽 비비고 김스낵. /CJ제일제당

태로, 씨솔트, 코리안 바비큐, 핫칠리 등 현지인이 선호하는 맛으로 선보였다. 또한 환경을 중시하는 유럽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내부 포장재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트레이는 종이로 대체했다.

‘비비고 김스낵’은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의 식음료 시상식에서도 맛·품질을 인정받았다. 지난달 열린 ‘그레이트 테이스트 어워즈’에 참가한 ‘비비고 김스낵’은 ‘우수’에 해당하는 별 1개를 수상했다. ‘그레이트 테이스

트 어워즈’는 전 세계 식품업계 종사자들에게 권위를 인정받는 상으로, 매년 1만5000여개의 제품들이 출품된다.

김은 CJ제일제당이 글로벌 영토확장에 힘쓰는 전략제품(GSP/만두·치킨·P-라이스·K소스·김치·김·롤) 중 하나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K-Gim’을 앞세워 보다 다양한 제품으로 글로벌 건강스낵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영국 메인스트림 입점과 ‘그레이트 테이스트 어워즈’ 수상은 유럽 전역으로 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김이 K-푸드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별 식문화와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KT&G가 지난 13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소통을 통한 구성원 공감대 강화를 위해 ‘CEO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백복인 KT&G 사장과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임직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KT&G

“일터의 가치, 구성원·회사 함께 성장”

KT&G, CEO 타운홀 미팅

KT&G가 중장기 비전과 성장전략에 대한 내부 공감대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KT&G는 지난 13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KT&G 상상플래닛’에서 임직원 소통 강화를 위한 ‘CEO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타운홀미팅에는 2030세대 직원으로 구성된 차세대 리더 협의체 ‘상상주니어보드’와 임직원들이 참석해 ‘미래비전’, ‘조직문화’, ‘경영전략’ 등 구성원들이 선정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백복인 사장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백복인 사장은 ‘글로벌 톱 티어’로의 도약을 위해 사업의 여러 영역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식과 기능을 조합하여 성과를 내는 ‘통섭형 인재’의 필요성과, 이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성과 포용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구성원들이 직접 선정한 각 분야의 우수 관리자인 ‘리얼 리더’ 시상식도 개최됐다. 백복인 사장은 수상을 한 3명의 관리자를 직접 격려하며 리더십 롤모델이 되어주길 당부했다.

백복인 KT&G 사장은 “일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구성원이 행복하게 일하면서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타운홀 미팅과 같은 건강한 소통이 계속될 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회사와 구성원 모두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올 추석 명절 ‘고품격 와인’ 선물 하세요”

나라셀라, 와인 선물세트 46종 준비
칠레 몬테스, 美·佛 등 대표와인 구성

와인 수입사 나라셀라가 다채로운 와인 선물 세트를 출시했다.

나라셀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성비, 프리미엄 와인뿐 아니라 소장의 가치를 더한 아트 레이블 와인까지 총 46종의 선물 세트를 선보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나라셀라의 추석선물세트에는 국내 누적 판매량 1300만병 판매를 기록한 칠레 최초의 프리미엄 와인 몬테스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양한 국가의 대표 와인으로 구성해 소비자의 선택지를 높였다.

먼저, 1987년 몬테스의 역사와 함께 출시한 ‘몬테스 알파’ 카버네 소비뇽과 멀롯 세트와 싱글 빈야드의 특색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몬테스 알파 상위 레인지 ‘몬테스 알파 블랙 라벨’ 카버네



2023 추석 와인 선물세트 46종을 선보였다. /나라셀라

소비뇽과 샤도네이 세트는 소중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로 손색이 없다.

또 세계 최고급 와인 생산지 중 하나인 미국 리시안 리버 밸리에서 생산되는 ‘라크레마’ 리시안 리버 밸리 피노 누아와 샤도네이 세트, 나파 밸리 멀롯의 대가 ‘덕훈’ 나파 밸리 멀롯과 카버네 소비뇽 애호가들 멀롯이라 불리는 ‘그르키치 힐스 이스테이트’ 나파 밸리 멀롯 세트 등 도 와인 애호가들에게는 정성을 담은 고

품격 선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받는 분에게 소장의 가치를 더해 줄 아트 와인 세트도 준비했다. 다 빈치의 명화 와인으로 유명한 ‘빌라 다 빈치’ 산토 이폴리토와 산 지오 세트, 이탈리아의 전설과 예술을 담아낸 아름다운 레이블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돈나 푸가타’ 세라자데와 안델리아 세트도 추석 선물 세트에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 이탈리아 베네토 와인의 명가 ‘체사리’ 발폴리첼라 클라시코와 소아베 클라시코 세트, 캘리포니아 고가성비 와인 ‘포스타’ 피노 누아와 샤도네이 세트,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여행 중 그린 명화를 만날 수 있는 ‘다 빈치’ 로마나 산지오베제 리제르바와 아파시네토 세트도 있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이마트 리빙브랜드 ‘더 라이프’ 스토어 론칭

SSG닷컴, 260여종 상품 총 망라

SSG닷컴이 이마트의 리빙 자체브랜드(PL) ‘더 라이프(The Life)’의 공식스토어를 정식 론칭했다고 14일 밝혔다. 엔데믹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온라인 리빙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카테고리 M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더 라이프’는 이마트가 지난해 말 가습비에 중점을 두고 출시한 리빙 PL이다. 가구부터 휴먼테리어, 침구류, 욕실용품, 주방용품 등 생활에 관련된 모든 아이템에 감각적인 디

자인을 더해 상품 가치를 높였고, 가격대도 합리적란 평가를 받는다.

SSG닷컴이 정식 오픈한 ‘더 라이프’ 공식스토어는 260여종의 리빙 관련 상품을 총 망라해 판매하며 올해 말까지 500여종으로 상품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17일 공식스토어 오픈 이후 ‘더 라이프’의 한달간 브랜드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50% 신장했다. 판매 상품 대부분을 시간대 지정 당일 ‘쓱배송’과 익일배송 서비스인 ‘쓱1DAY배송’을 통해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LG생건, 바디워시·로션 ‘저탄소’ 인증

‘행동하는 클린뷰티’ 실천

LG 생활건강이 지난 2022년부터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행동하는 클린뷰티’를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탄소배출량 감축에서 역량을 높이고 있다.

LG 생활건강은 자사의 클린뷰티 브랜드 ‘비온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바디워시와 바디로션 제품 2종이 환경부로부터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국내에서 바디로션 품목이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인증 받은 저탄소 제품은 ‘비온드 딥 모이스처 크리미 바디워시’와 ‘비온드 딥 모이스처 스무딩 바디 에멀전’이다.

LG생활건강은 두 제품의 용기 제작에 재활용 플라스틱이 98.5% 들어간 페트(PET)를 활용했다. 또한 생산 단계부터 전력과 물 사용량을 줄여 탄소배출량을 평균 9.4% 이상 감축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GC녹십자웰빙-캐치티니핑 ‘어린이 유산균’ 출시

GC녹십자웰빙이 캐릭터 콜라보 마케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GC녹십자웰빙은 최근 인기 캐릭터 ‘캐치티니핑’과 콜라보한 어린이용 제품 ‘Ur.pnt 숨쉬는 어린이 유산균’을 출시했다. GC녹십자웰빙의 숨쉬는 어린이 유산균은 GC녹십자웰빙 유산균 전문 연구소에서 오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호흡기 특허 유산균주를 함유했다. 여기에 도라지, 프로폴리스, 유자에서 추출한 부원료가 들어있어 편안한 호흡에 도움을 준다.

/이세경 기자 seilee@

신세계免, 뷰티·패션 등 최대 80% 할인

‘체크인! 골든 페스티벌’ 프로모션

신세계면세점이 9월과 10월 추석 명절 및 황금연휴를 맞아 ‘신세계로 체크인! 골든 페스티벌’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신세계가 준비한 여행&쇼핑 축제’란 콘셉트 아래 고객들이 연휴 기간 풍요로운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브랜드 할인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온라인몰에서는 뷰티, 패션, 주얼리, 건강식품 등 약 300개 브랜드에서

최대 80%의 할인 혜택과 8개 브랜드 사은행사를 한다.

국내 고객 중 선착순 150명 한정으로 BC카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중국인 관광객(유커)을 대상으로 게임 이벤트와 유니온페이/알리페이 온라인 결제 할인 프로모션을 운영한다.

오프라인매장에서는 최대 70%까지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해밀턴 외 12개 브랜드에서는 상품 구매 시 사은품을 증정한다.

/최빛나 기자

주요 기업 '풍성한 한가위' 지원

삼성, JY '동행' 비전 실천

협력사 대금 1.4조 조기지급
임직원 장터 확대... 내수 기여

삼성이 추석 명절을 맞아 협력사는 물론 우리나라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전사적인 작전을 시작한다. 수산물 소비와 국내 여행을 권장하며 맞춤형 전략도 마련했다.

삼성은 11개 계열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물품대금 1조 4000억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그 뿐 아니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장터를 확대 운영하고 임직원에게 국내 여행을 권장하는 등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하며 이 재용 회장 '동행' 비전도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물품 대금 조기 지급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



추석맞이 온라인 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삼성전자 직원.

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삼성웰스토리 등이다.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10일 앞당길 예정이다. 그 밖에도 삼성은 3조 4000억원 규모 상생 및 물대 펀드를 운영하고, 우수 협력사에 연간 1000억원 규모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납품 단가 연동제와 스마트 공장 전환 지원 등도 시행한다

삼성은 명절마다 진행하던 임직원 대상 장터를 더욱 확대해 내수 경기에도 힘을 보탤다는 방침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LG, 협력사 등 나눔 '앞장'

협력사 대금 1.2조 조기지급
소외이웃에 생활용품 전달

LG그룹이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는 물론 지역사회와 나눔 활동에 나섰다.

LG그룹은 8개 계열사가 협력사 납품대금 1조2000억원 규모를 예정일보다 최대 18일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LG는 명절마다 원자재 대금과 상여금 지급 등으로 수요가 몰리는 협력사를 위해 조기 대금 지급을 이어왔다. 이번에는 지난해 추석보다 지급 규모를 2000억원 늘렸다.

아울러 LG 계열사들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소외 이웃에 생활용품과 식료품 등 생필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눌 계획이다. LG이노텍은 임직원 봉사활동도 준비했다.

LG계열사들은 이와 함께 협력사에 저금리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상생협력펀드와 직접 대출 등



여의도 LG 트윈타워 전경 /LG

1조2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협력사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상생협력펀드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감면한 특별 금리도 적용했다. 규모도 꾸준히 늘리고 금리 우대 등 금융 지원도 더하고 있다.

LG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협력사를 돕기 위해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며 "납품대금 조기지급, 상생결제시스템 확대 등 협력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생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기자



현대건설, 유럽 인프라 구축 사업 속도

현대건설은 폴란드건설협회, 폴란드원자력연구원 및 현지 유력 건설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원자력사업을 포함해 신재생에너지·공항·스마트시티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의 토대를 다졌다고 14일 밝혔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왼쪽)과 다미안 카즈미에르작 폴란드 건설협회 부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건설



LG CNS-고려대, AI 인재양성 맞손

LG CNS가 고려대 대학원과 함께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나선다. LG CNS가 지난 13일 고려대학교와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본관에서 '데이터과학 및 AI 분야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LG CNS 현신균 대표이사(오른쪽)와 고려대학교 김동원 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 CNS

KDIA, 소부장 기업 등 인도 진출 지원 삼성바이오, 글로벌 협력사 동반성장 나서

무역사절단과 인도 주요지역 순회
인센티브 계획 등 정부 육성지 확인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계가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를 찾아 협력을 모색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는 10일부터 14일까지 소부장 기업으로 구성된 무역 사절단과 함께 인도 주요 지역을 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는 지난 4월 '한-인도 디스플레이산업 협력 세미나·상담회'에 따라 추진됐다. 양국간 교류 협력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국내 소부장 기업들과 현지 6개 기업이 참가해 깊은 상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KDIA와 사절단은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구자라트 돌레라 특별 투자지역을 방문해 부지를 점검하고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확인하는 등 현지 정부의 육성 의지도 확인했다.

인도는 최근 세트기업 진출과 디스플레이 생산 거점 확대 등으로 새로운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인도전자반도체협회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디스플레이 주요 수출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 육성 정책으로 2025년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 8.7%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부장에도 '기회의 땅'으로 불린다.

KDIA는 인도전자반도체협회(IESA)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인도 진출과 수출 확대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국내 기업 진출을 위해 정보 교환과 전시 및 세미나 개최, 공동 프로그램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용 기자

코이노베이션 데이 개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강화를 위한 '코이노베이션 데이'를 열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13~14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소재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글로벌 협력사인 마크, 싸이티바, 싸토리우스, 씨모 피셔 사이언티픽 총 4개 회사가 초청됐다. ▲혁신적인 CHO 세포 배양방법(씨모 피셔 사이언티픽) ▲크로마토그래피 기술 및 글로벌 바이

오 산업 동향(싸토리우스) ▲항체 약물 접합체 프로세스(싸이티바) 등 바이오 의약품 생산 분야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제들이 다뤄졌다. 세미나에는 제조, 품질운영, 위탁개발(CDO) 등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여러 유관부서에서 40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기술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전시 부스에서는 싱글유즈 바이오리액터와 싱글유즈 원심분리기(씨모 피셔 사이언티픽),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마크) 등 협력사들의 최신 자재들과 장비들을 선보였다. /이세경 기자 seilee@



고병일 광주은행장, '나눔리더' 가입

광주은행은 지난 13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의 '220인의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 200호 가입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왼쪽)이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과 포즈를 취했다. /JB광주은행



홈플러스, 취약계층 에너지사업 지원

홈플러스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취약계층 에너지사업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왼쪽부터) 이상천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문효식 롯데칠성음료 신유동부문장, 감태규 홈플러스 그로스리상상품본부장(상무)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홈플러스

지엔티파마, 연세대 'GSTCH 연구소' 개소

신약 개발 벤처기업 지엔티파마는 14일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기념관에서 'GSTCH 연구소' 개소식을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

GSTCH는 뇌졸중과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개발 등 지엔티파마의 기존 파이프라인 기초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다양한 뇌질환뿐 아니라 인

간 주요 질환의 공통 발병 기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뇌혈관 및 뇌 염증 연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GSTCH는 연구소장인 연세대학교 의생명과학부 명예교수를 주축으로 뇌질환연구부와 제형연구부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세경 기자

부음

▲배부임 씨 별세, 전주중(SK증권 대표이사 사장)·강인순(전 노비타 대표이사)·이보영(한국항공대 명예교수)·이동수(전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본부장)·강희원(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씨 빙모상, 황성식(전 신도리코 부회장)·성혜·영혜·정혜·미혜·희정씨 모친상 = 13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 장지 새문안교회 추모관. 02-3410-3151

▲김정우씨 별세, 조경선(신한DS 대표이사)씨 남편상, 김창현·동준씨 부친상 = 14일, 일산백병원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6일 오전 9시, 장지 서울시립송화원. 031-910-7444

▲이일심씨 별세, 문정곤(전북일보 군산취재본부장)씨 장모상 = 14일 오전 10시45분, 군산의료원장례식장 오행원 3호실, 발인 16일 오전 9시. 063-472-5740



교원투어-SKB, 시니어 상품 개발 맞손

교원투어가 SK브로드밴드와 손잡고 시니어 맞춤형 여행상품 개발에 나선다. 13일 서울 중구 SK브로드밴드 본사에서 교원투어 이상구 여행기획부문장, SK브로드밴드 이강희 세그먼트마케팅 담당이 시니어 맞춤형 여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원투어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13 | 해질 / 18:41

9월

15일 (금)

음력 : 8월 1일

수도권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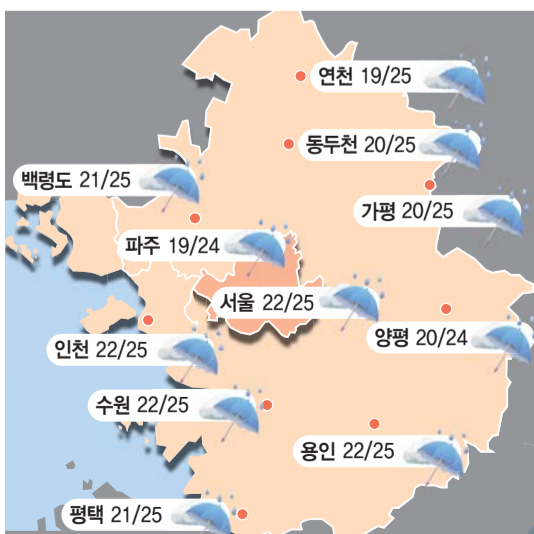
22~2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맞다

2023년 9월 19일(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행사명 :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14~17시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3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주제 : '엔데믹, 글로벌 물류 대변혁기 맞다'
◎ 장소 :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
◎ 등록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당일 카드결제 가능)

포럼 참석 선착순 100명에게 블루투스 무선이어폰을 증정합니다.



탤런트 이 경영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AMAS맞춤깔창 판매점 모집

삽인삽/한평삽/무점포

맞춤깔창의 대중화 선언

극소자본 창업

AMAS장비 무상지원

1년 무상 리폼을 통한
확실한 애프터서비스!

키 자세를 바르게 하여
가 수욱~쑥

어린이성장깔창

10분 만에 측정하고 제작을 완성하는
초간편! 초저가! 최고의 가성비!



세상 사람들의 발 아치(족궁)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은 깔창을 신고 있습니다.

제2의 심장
발



극소자본.최상매출.광역상권 www.amas7.net
총판.판매점 문의 1660-1642

82305381365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인증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베이징에 집 한채 사놔”… 80년대생 집주인 그녀



안상미 기자의
더 베이징

[안상미 기자의 더 베이징]은 2주에 한 번 중국의 사회와 경제, 문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2년 간의 베이징 주재 기간 동안 겪었던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중국 밖에선 알지 못하는 ‘유일한(TH·E·더)’, 그리고 ‘더’ 깊은 베이징을 전달합니다.

“베이징에 있을 때 딸한테 집 한 채 사줘. 나 봐봐, 얼마나 좋은가. 나도 엄마한테 받은거야. 왕징에 한 채 더 있어. 지금 집값 내린다고 하지? 베이징 집값은 절대 안내려.”
중국인 집주인이다. 계약할 땐 부동산이 주

는 서류에 사인만 했더라 실제 만나는 건 처음이었다. 1981년생인 것은 알았지만 여자인 줄은 몰랐다.

1년 임대 계약이 끝날 때가 되자 집주인이 오겠다고 연락을 했다. 상태가 좋은 집의 경우 계약이 끝나거나 갱신할 때 집주인이 직접 점검한 다더니 이 경우였다.

집이 생각보다 깨끗했는지 수다가 시작됐다. 그런데 중국어가 아닌 영어였다. 수준급이다. 어릴 때부터 방학때면 영국으로 캠프나 연수를 다녀왔다고 한다.

좋은 법도 하다. 물려받은 집에서 수백 만원에 달하는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니 말이다.

중국에 입국하고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은 베이징에서도 한국인들이 많이 산다는 차오양구 왕징이었다. 자금성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1환, 2환 구역으로 나뉜 베이징에서 왕징은 외곽에 가까운 4환과 5환 사이에 있다. 중심가에서 꽤 떨어졌지만 방 3개 짜리 아파트의 월세가 보통 2만 위안(한화 약 365만원)은 했다. 대기업 주재

원들이 사는 곳은 3만5000위안까지도 했다. 월세 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으니 그녀의 순소득은 매달 최소 400만원 안팎, 아니 한 채 더 있다고 하니 매달 800만~9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연간 국민소득이 작년 기준 1만2850달러(한화 약 1700만원)인 나라에서 말이다.

사실 과거 중국 경제성장의 한 축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었다. 각 지방 정부와 기업은 물론 개인들도 부동산 열풍 속에서 재산을 늘렸다. 왕징지역 역시 뒤늦게라도 부동산 투자(또는 투기)에 나섰던 사람들은 새로 지은 아파트 2~3채씩은 받았다고 한다. 눈 뜨면 늘어나는 재산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모든 이들이 국가 정책에 순응했고, 체제는 더 공고해졌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부동산 불패신화도 이제 신기루가 됐다. 각 지방 성들은 집값이 하락세를 탄 지 몇 년째고, 집주인의 호언장담과 달리 베이징의 집값마저 흔들렸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와 선전 등 주요 도시의 집값은 15% 안팎, 2·3선 도시의 경우 50% 이상 하락했다고

한다.

중국에서 현지 친구를 사귀고 나면 다들 한번 듣는 말이 있다. 하이난에 집이 있으니 놀러갈 일이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 ‘동양의 하와이’로도 불리는 하이난은 중국의 대표적인 휴양지다. 그래서 좋은 별장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면 빈 집이 널려있는 텅빈 아파트였다 후기가 많다. 사농기만 하면 돈이 됐던 시절에 분양을 받았다가 몇 년째 빈 집이 되자 관리비라도 충당하자고 가란 얘기였다.

베이징 시내로 옮긴 집의 임대인도 1980년생 여자였다. 외교부 공무원이라더니 역시 영어로 의사소통이 잘 됐다. 살아보니 두 명의 집주인 모두 전형적인 베이징 토박이 2, 3세대의 모습이기도 했다. 좋은 교육을 받아 영어에 능통하고, 한 자녀 정책 속에서 베이징에 집 한 두채씩은 물려받은 이들 말이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붐과 경제 침체는 물론 체제를 흔들 수도 있는 진정한 위기인 셈이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방대한 지식, 요긴하게 쓰는 방법

TV에서 ‘저장 강박증’에 걸린 사람의 집을 본 적이 있다. 살림에 필요한 가재 도구부터 운동기구, 취미생활 용품, 심지어는 이웃이 내다버린 소파와 냉장고까지 각종 잡동사니가 발디딜 틈 없이 빼곡하게 들어차 보지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집이었다. 허를 찔러 차면서 화면을 보다가 남 얘기가 아니라 걸 깨달았다. 필자와 그들 사이에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온갖 것들을 다 저장해 놓은 곳이 집이 아닌 PC(개인용 컴퓨터)라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다니는 외장하드가 몇 개인지, 저장 장치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세컨드 브레인’은 방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세컨드 브레인은 우리가 사소한 것들을 일일이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 없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도록 소중한 추억과 아이디어, 지식을 저장하는 디지털 기록보관소다.

인터넷과 과학기술 발달로 정보의 양은 차고 넘치게 됐지만, 사람들은 ‘21세기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를 소비할 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스스로 받아들이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마구 빨아들이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늘날 일반인이 하루에 소비하는 정보는 34기가바이트에 달한다. 우리가 매일 신문 174부에 해당하는 분량의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됐다.

저자는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는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커녕 오히려 주눅들게 할 때가 많다”며 “정보 과부하”는 “정보 탈진”으로 이어져 인간의 정신 자원에 큰 부담이 되고, 우리는 뭔가를 잊고 있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불안해 한다”고 진단한다.



세컨드 브레인

티아고 포르테 지음/서은경 옮김/뽀뽀퍼커스

콘텐츠를 무한정으로 소비하는 대신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아이디어가 함축한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고 재구성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머릿속 생각들이 철학적인 질문으로 바뀐다고 책은 이야기한다. 이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삶의 장기 비전과 어울리는가, 새로운 전략이 나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등 가치를 창조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세컨드 브레인은 수집, 정리, 추출, 표현 총 4개 단계 과정을 거쳐 구축된다. 책은 기층 깊이와 닿는 정보를 모은 후 실행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갈무리하라고 조언한다. 보관하는 모든 것에 목적이 있단 걸 알게 되면 생각이 명확해 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아이디어에서 핵심만을 추출해 당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라고 저자는 말한다. 책은 다음의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352쪽. 1만6800원. /김현정 기자 hjk1@

연결된 위기

책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대만 점령, 한반도 핵위기는 모두 연결돼 있는 사건이며 대한민국이 위기의 핵심 장소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20세기 질서의 수립자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한 근본적인 위기라고 진단한다. 고정된 냉전의 틀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오독이며, 국제 정세의 새로운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선 냉전

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 시기 ‘열전’에 대한 전쟁 억제 기제가 유럽 내에서 무너지고 있으며, 그 주축이었던 러시아가 중요한 도발자로 전환하고 있던 사실을 보여준다. 저자는 냉전에 대한 표준적 이해에 질문을 던지며 냉전체제를 기반으로 한 세계질서의 기틀이 해체되는 과정으로 현 위기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416쪽. 2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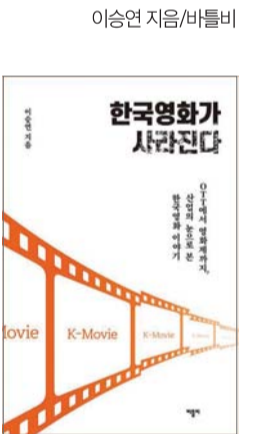


백승욱 지음/생각의힘

한국영화가 사라진다

한국영화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책은 국내 영화산업의 침체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OTT의 성장 때문만은 아니라고 진단한다. 묵은 폐단으로 인한 극장의 위기는 전부터 존재해왔고 팬데믹으로 문제점이 선명하게 드러났을 뿐이라는 것. 저자는 ‘스크린 독과점’과 ‘수직 계열화’로 대표되는 멀티플렉스들이 한국영화계를 병들게 한 주체라고 지적하며, 복합상영

관 3사의 배를 불리는데 쓰이는 돈을 ‘미래 영화감독’을 키우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기업의 영화 배급·상영 검열 제한, 특정 영화 스크린 독과점 금지, 독립·예술영화 및 전용관 지원 제도화를 골자로 한 ‘포스트 봉준호법’ 제정으로 감독들이 만든 영화가 관객을 만나고, 그들이 계속해 영화를 찍을 수 있게 하는 구조만이 한국영화계를 살릴 수 있다고 책은 강조한다. 332쪽. 1만9500원.



이승연 지음/바들비

플라스틱 게임

인간에게 상상치 못할 편리함을 제공해왔던 플라스틱은 이제 우리에게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을 주고 있다. 기후위기, 생태계 지각변동,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자 종착점, 그 정점엔 플라스틱이 있다. 인간이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공장의 수가 늘어난다. 기온이 오르고 해수면이 상승해 생명체가 견딜 수 없는 날

씨가 이어지면 생태계는 파괴된다.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앙을 목격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더 많은 플라스틱을 소비해 최후의 종말을 맞을 것인지, 기업과 정부, 개인이 함께 제로웨이스트에 동참해 지구를 살리는 해피 엔딩을 그릴 것인지 선택할 때가 왔다고 책은 이야기한다. 348쪽. 1만8000원. /김현정 기자



신혜정, 김현중 지음/프란시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코레일, 노조 파업 첫날 KTX 2회 임시 운행 재개 /사진 뉴시스
▲ 10년간 4년제 대학 의약계열 정원만 2배 이상 급증…인문계열 20% 줄어

▲ 택배건 경태 이용해 후원금 횡령한 커플, 항소심서 대폭 감형
▲ 경기북부서 대낮 음주단속…1.5시간 4명 적발



▲ 박영수 전 특검, 대장동 로비 의혹에 재산 20억 추정보전 /사진 뉴시스
▲ 8월에만 인천서 흥기 쓴 폭력사범 700여명 검거



가든 베일리 아트



아파트 단지에서 200년 된 향나무가 자태를 뽐내고 있다.



그린 캐스케이드



석가산

자연, 가장 가까이 닿는 곳

아파트의 미학(美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주변에 공원으로 질 높은 일상
주차장 없던 공원형 단지 조성

친환경 마감재 사용, 공간 실현
창문 열지 않아도 내부 환기 가능

가벽정원·석가산, 산수화 운치
미디어아트로 예술 풍경 만들어

최근 찾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5분 정도 걸렸다.

단지 바로 옆에는 계성초등학교와 신반포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신반포공원, 반포종합운동장, 반포한강공원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입주민들이 질 높은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신반포아파트 3차·23차, 반포 경남아파트, 반포 우정예체르 등을 통합해 재건축한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3개동, 총 299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전용면적 ▲46㎡ ▲59㎡ ▲84㎡ ▲101㎡ ▲116㎡ ▲101㎡ ▲168㎡ ▲178㎡ ▲185㎡ ▲200㎡ ▲234㎡ 등 다양한 타입으로 공급됐다.

아파트 정문에는 '래미안' 글씨가 부각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전 세대를 4베이(BAY·전면부를 향하고 있는 방이나 거실의 수)로 설계해 채광을 극대화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입주민을 위해 천정고를 일반아파트(2.3m)보다 20cm 높은 2.5m로 설계해 개방감과 공간감을 확대했다. 중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 콘크리트 슬라브 두께를 일반 아파트보다 20% 늘린 250mm로 설계했다.

각 세대에는 삼성물산이 자체개발한 래미안 홈 IoT 플랫폼이 적용됐다. 입주자들

은 실내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IoT 홈 큐브를 비롯해 얼굴인식·지문인식·자동환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입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을 없앤 공원형 아파트로 단지를 조성한 것이 눈에 띄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벽지, 도배필, 마루 및 접착제, 발코니 친환경 수성페인트 등의 친환경 마감재 사용으로 환경친화적 주거공간을 실현했다"면서 "세대에는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자동으로 운전되는 전열교환기가 설치돼 창문을 열지 않아도 내부 환기가 가능해져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시켜 준다"고 설명했다.

단지 곳곳에는 '래미안 원베일리'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단지 내 레벨 차이를 이용한 벽천이 조성된 휴게 공간 '워터 라운지(water lounge)'는 배틀럼 형태로 조성된 가벽이 정원에 아늑함을 더해주고 있었다. 산과 계곡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석가산은 진경산수화 속으로 들어온 듯 운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단지 내에는 유일무이한 공간인 '가든 베일리 아트(garden bailey art)'는 미디어아트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어우러져 드라마틱한 풍경을 만들고 있었다. 장미와 식물로 조성된 '루미너리 힐(luminary hill)', 언덕 속 골짜기 숲을 모던한 디자인을 표현한 '그린 캐스케이드(green cascade)' 등도 조성돼 있어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입주민의 고품격 커뮤니티 실현을 위해 피트니스클럽을 비롯해 사우나, 수영장, GX룸, 골프연습장, 다목적 체육관, 게스트하우스, 독서실,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돼 있었다. 특히, 스카이크뮤니티에는 스카이브릿지, 북카페, 공중정원 등이 들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글·사진=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유통 오퍼들의
미술 사랑
사업 시너지 극대화
04



Life

비비고 김스낵
영국 본격 상륙
K-푸드 영도확장
니



쫄득한 빵에 폭신한 크림 가득... “빵집 대신 편의점 가요”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연세우유 생크림빵’

편의점 CU에서 판매하는 100여종의 디저트 중 매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크림빵이 있다. 바로 ‘연세우유 생크림빵’이다.

편의점 CU와 연세우유의 합작 제품인 ‘연세우유 생크림빵’ 시리즈는 우유·단팥·초코 등 3종으로 출시됐으며 출시 직후 디저트상품 매출 1~3위를 싹쓸이했다. 현재도 CU의 전체 디저트 매출 비중의 50.8%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출시한 ‘연세우유 생크림빵’은 베이커리 전문점 못지않은 품질로 별도의 마케팅 없이 오로지 상품력 하나만으로 편의점 최고 히트 상품에 등극했다.



연세우유 생크림빵 시리즈(위)와 한라봉 생크림빵. /CU



생크림빵▶



단팥생크림빵▶



초코생크림빵▶



메론생크림빵▶

연세우유 생크림빵 시리즈의 인기 비결은 단연 소비자의 식감을 만족시키는 품질이다.

연세우유가 만든 연세우유 생크림빵 시리즈는 모두 빵 속에 전체 중량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푸짐한 생크림이 들어있으며, 빵도 쫄득하고 촉촉한 식감을 자랑한다.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SNS에 반갈샷(반을 갈라 내용물을 보여주는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수개월 동안 품귀 현상이 이어지자 온라인에서는 연세우유 크림빵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멤버십 앱 포켓CU의 재고찾기 서비스와 예약구매 이용 방법이 공유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작년 포켓CU 예약구매 이용량은 전년 동기대비 약 20배 늘어났다.

특히 CU가 지난 4월 출시한 연세우유 말차 생크림빵은 출시 전부터 고객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키면서 예약구매 오픈 하루만에 1만개가 판매되기도 했다. 전작인 솔티카라멜보다 30%나 빠른 속도다.

‘연세우유 생크림빵’이 큰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연세우유업은 1962년 창사 이래 최초로 연매출 30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올해 창립 61주년을 맞은 연세우유업은 오랜 업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 연매출 2000억원을 처음 돌파한 이후 지난 10년간 3000억원 선을 넘어서지 못했다.

생크림빵 열풍에 연세우유 브랜드 인지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우유, 가공유 등 제품의 전반적인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출산을 하라과 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유가공업체가 저성장의 뒷에 갇힌 가운데서도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무려 33% 이상 증가해 눈길을 끈다.

연세우유 관계자는 “연세우유 생크림빵의 인기 덕분에 전반적인 브랜드의 인지도나 품질 신뢰도가 크게 개선되면서 연세우유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가공 업계에 따르면, 연세우유업은 지난해 3053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도인 2021년 매출 규모(2292억원)와 비교하면 33.2% 증가한 수준이다.

편의점 CU를 통해 지난해 1월 출시된 연세우유 생크림빵은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4000만개를 돌파했다. 편의점 CU에 따르면 연세우유 생크림빵의 올해 1~8월까지 전년 대비 매출 신장률은 138.4%다.

편의점 CU와 연세우유 합작 제품 ‘생크림빵’ 품질 하나로 입소문... 디저트 매출 절반 넘어 중량 80% 차지하는 생크림에 쫄득한 빵까지 단면 비주얼에 SNS ‘반갈샷’ 유행 시키기도

연세우유업은 이러한 기세를 몰아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31일에는 충남 아산 공장의 대규모 증설을 마무리하고 연면적 6631㎡(약 3000평) 규모의 자동화 참고 준공식을 갖기도 했다.

CU의 인기 디저트 순위를 살펴보면, 1위 연세우유 말차 생크림빵, 2위 연세우유 생크림빵, 3위 연세우유 초코생크림빵, 4위 연세우유 한라봉생크림빵 순이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측은 “편의점은 트렌드가 빠른 만큼 상품의 순환 주기가 짧는데 연세우유 생크림빵 시리즈의 경우 꾸준히 매출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이례적”이라며 “향후 CU에서만 만날 수 있는 고품질의 차별화 상품을 개발해 가맹점의 경쟁력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62년 사업을 시작한 연세우유업은 연세대학교가 운영하며 수익금 전액을 교육재원으로 환원하는 비영리 사회공헌 기업이다. 1993년 아산공장을 준공하고, 연세대 교수진들과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진행 중이다. 우유, 두유, 발효유, 음료, 디저트 등을 생산하며 모든 제품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취득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BS11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다시 돌아온 유인촌 장관 “마지막 소명이라 생각” /사진 뉴시스
▲인천공항공사, 우천 예보에 2023스카이페스티벌 연기

▲KBO 신인 드래프트, 장충고 황준서 전체 1순위 한화로
▲화사, ‘아이 러브 마이 바디’ 유튜브 2000만뷰 돌파



▲서울 송파구, 다음주 ‘한성 백제 문화제’ 개최 /사진 뉴시스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금메달리스트 36명 등 886명 파견